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 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불법광고 차단’ 법개정 시급
폰 소액결제 등 불법 현금화 극성
온라인은 URL 차단하면 되지만
오프라인 광고는 중지 대상 제외
관계기관 논의로 기준 마련해야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카드깡, 폰깡) 등 ‘불법 현금화’ 광고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는 불법 현금화 광고의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관련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 이용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광고를 보고 불법 사금융에 유입되는 피해자가 있는 만큼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본지 취재 결과, 휴대폰 소액결제와 신용카드 현금화 관련 오프라인 광고는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조치 의뢰 시
불법금융정보 유형별 법률 근거

불법대부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 → 「대부업법」 제 9조의 2(대부업 등에 관한 광고 금지), 제19조(벌칙)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 72조(벌칙)
신용카드 현금화	물품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해 자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벌칙)

※ 출처: 금융감독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는 1~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전화번호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열거돼 있다. 이에 따르면 대부업법 제9조의6에 따른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이 있어야 한다. 해당 조항에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에도 대부업 관련 광고를 한 경우, 사·도지사·금융감독원장·검찰총장·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과기부 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때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광고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에도 대부업 관련 광고를 한 경우, 즉 ‘불법 대부광고’에 국한된다. 전단에 쓰여 있는 사업자의 번호가 금감원 등록대부업체 조회 결과 미등록인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전단에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명확한 명시가 없으면 제재할 수 없다.

문제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행위를 금감원이 이미 ‘불법 금융정보’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

감원은 정보통신망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다만, 이는 온라인 게시물에 국한돼 있다. 같은 불법금융정보가 오프라인 광고의 형태로 거리에 만연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법 현금화 오프라인광고전단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하는 것이다. 다만,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통해 항목

에 ‘불법 현금화’가 추가되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해석상의 문제’로 불법 현금화 광고를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대상에 추가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대부는 ‘등록 대부업자가 아닌 자가 대부업을 영위한다’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있는 반면, 불법 현금화는 전단에 적힌 글의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복잡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단에 ‘대출’이 쓰여 있으면 곧바로 제재 대상이 되는 불법 대부광고와 달리, 충분한 정보가 쓰여 있지 않은 불법 현금화 광고는 불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무적인 검토를 거친 뒤 과기부, 방심위 등 정부 관계기관들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향후 열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건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프라인 광고의 불법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유하영 기자 haha@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 … 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당국 “외국기업과 협의… 시간 소요”
방심위에 URL차단 요청했지만 불허
법 사각지대 속 소비자 피해 눈덩이

국내에서 급성장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에서 불법 대부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해외 SNS의 경우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데다 금감원 및 지자체를 거쳐야만 불법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 신속

성이 떨어진다.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사이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지는 취약계층들은 늘어나면서 피해를 키우는 양상이다.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 관리 강화 및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단속·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이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

사에 수차례 자정 노력을 요청한 결과, 10월부터 ‘긴급대출’ 등 단어 검색 시 서민금융진흥원바로가기 링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됐다.

문제는 해외 SNS다. 현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는 불법 대부광고가 버젓이 노출돼 있다. 당국은 해외 SNS 기업과 협의 중이지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국 회사라 불법 사금융을 예방하는데 동참해달라고 전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요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점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포털에서 자체적으로 필터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빠른 시간 안에 불법 사금융 관련 인터넷주소(URL)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금원이 불법 광고 URL을 차단하려면 금감원에 건의하고 금감원에서 이를 모니터링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금원은 불법 URL을 직접 방심위에 차단 권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금원 관계자는 “해외 SNS에는 서금원을 사칭한 게시물이 많다”며 “빠른 시간 안에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방심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방심위 관계자는 “온라인 게시물

과 URL 등의 불법성을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계기관이 법률마다 존재하는데, 금융 관련 분야는 금융당국의 일차적인 법률위반성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면서 “해외 서버를 둔 게시물은 기술적인 접속차단 조치를 하는 것과 함께 구글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해 해당 정보를 삭제 요청한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도 대부업협회 등 기관에서 서민금융 상품 사칭, 정부 사칭건을 모니터링한 것을 전달받아 방심위에 요청하고 있다”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해외 SNS도 마찬가지이며 서금원에서 주기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받아서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농림축산식품부



FOODPOLIS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식품산업의 혁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함께합니다.



식품기업을 위한
지원사업문의·분양안내
063-720-0500



“업비트, 서비스 개선 결과” vs “단타 투기 악순환 반복”

업비트 독점 엇갈린 목소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과점 이상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업계 전문가 모두 ‘다양한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모았으나, 당장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대다수는 업비트가 국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 업비트의 시장 독점과 관련해서는 시장을 국내 시장으로 한정할지, 글로벌 시장으로까지 봐야 할지에 따라 독점 지위에 대한 해석이 갈렸다. 다만, 국내 업계에선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국내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파트너변호사는 “시장 확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독점적 지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업비트는 독점 사업자로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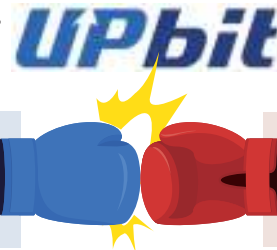
업비트의 독점으로 인해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폐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업계 관계자들은 장기적인 독점의 부작

업비트, 가상자산 시장 독점에 대한 업계 반응

부작용 없다

- 서비스 경쟁 통해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점유율
- 장기적으로 부작용 우려되지만, 현재는 딱히 없어
- 출혈 경쟁도 아냐. 경쟁업체와 달리 수수료 받아



부작용 있다

- 업비트로 거래량 쏠려 시세 조정 위험 커
- 시세 조정으로 단타성 투기 늘어 업비트 쏠림 악순환
- 경쟁업체는 생존 위해 무한 상장, 접근인 피해

“자연스러운 시장경쟁”

출혈경쟁 아닌 사용자경험 개선 잠재적 우려뿐 큰 부작용은 없어

용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도, 당장 독점에 의한 폐해는 없다고 평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잠재적인 부작용이 우려될 뿐 (업비트의 독점이) 부작용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큰 부작용이 없다는 측은 현재의 시장 구조 상황이 서비스와 수수료 등 이용자의 복리후생에 대한 경쟁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업비트가 사용자경험·사용자환경(UX·UI) 등을 혁신해 현재 점유율을 자연스럽게 가져간 것은 맞지만, 이후 서비스나 생태계 측면에서 혁신을 저해한 사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시점에서 독점에 따른 △거래량 쏠림으로 인한

시세조종 우려 △단독 상장 악순환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거래량이 업비트로 쏠리면서 많은 가상자산, 특히 시세변동이 심한 알트코인의 거래가 사실상 업비트에서만 이뤄지면서 ‘시세조종’이 쉬워진다는 우려가 크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상위종목은 대부분 시세 조종이 쉬운 알트코인이다. 이날 거래량 1위를 기록 중인 스택스(STX)의 경우 전체 거래의 48.25%가 업비트에서 이뤄질 정도로 편중이 심하다. 대부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것과 비교된다. 그나마 최근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넘어서며,

“투자자 피해 어떡하나”

국내 알트코인 시세조종 우려 급등락 반복되며 손실 눈덩이

이날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이 업비트 거래량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한 거래소에 거래량이 집중됨과 동시에 알트코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세력이나 큰손이 가격에 개입하기 쉬워진다”면서 “이는 단타 위주의 투자 풍조와 시세조종, 거래량 쏠림이 순환적으로 계속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어 “이러한 급등락 현상이 반복될수록, 투자자들은 가치투자보다는 단타에 매몰되고, 실제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거래소 특성상 다른 거래소를 역시 생존을 위해 업비트에 없는 자산을 상장하게 돼, 무분별한 상장과 폐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렇게 단독 상장된 코인은 역시 가두리 상태가 돼 인위적인 가격 상승과 덩핑의 표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는 것이다.

최하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다른 거래소가 살아남으려면 결국 업비트에 상장되지 않은 잡코인을 상장하는 것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제대로 필터링되지 않은 사기성 코인들이 많이 상장되게 되고, 작전 세력에 의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며 전체 시장이 점점 양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은 기자 zion0304@

거래소 4곳, 신규 상장 집중 업비트 시장 독주 속 교육책

업비트와 차별 전략 사실상 상장뿐 상폐도 많아... 일각 부실 코인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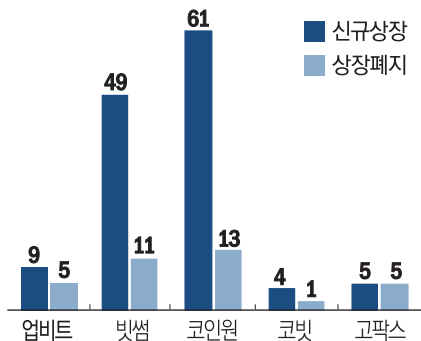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업비트 독주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생존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 및 각종 인센티브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부 거래소는 신규 상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5일 본지가 올해 하반기(2023년 7월~2023년 12월 5일)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에 새롭게 상장한 가상자산을 조사한 결과, 코인원 64종·빗썸 49종으로 두 거래소가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신규 상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업비트 9종, 고팍스 5종, 코빗 4종 순이다.

빗썸과 코인원이 상장에 열을 올리는 건 업비트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거래소 간 차별 전략이 사실상 ‘상장’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보수적으로 상장과 폐지에 임했지만,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신규 상장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하지 않는 코인원으로는 신규 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코인원 관계자는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올해 가능한 상장을 많이 하자는 기조를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 폐지 역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올 하반기 거래소별 거래 지원 종로 가상자산은 △업비트 5종 △빗썸 11종 △코인원 13종 △코빗 1종

하반기 가상자산 거래소별 상장·폐지 건수 (단위: 건)



△고팍스 5종 등이다. 이 중 DAXA(다사·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의 결정으로 거래 지원이 종료된 건 △리니어파이낸스(LINA) △렌(REN) 2종뿐이다.

가상자산 검증 및 상장 규제가 촘촘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상장이 활발해지자, 일각에서는 부실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결국 거래가 활발해 (거래소에) 돈이 되는 코인이 무엇일지 판단해 상장하는 것”이라면서 “당장 버는 돈이 없는데 법적 효력이 없는 닥사 가이드라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국내 이용자들이 시세 조종 등에 취약한 알트코인을 거래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거래 비중은 50.4%에 달하지만, 국내에서는 25.7%에 불과하다. 국내 유통되는 가상자산 622종 중 59%가 단독 상장된 코인이다. 부실한 코인 프로젝트는 결국 상장 폐지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이용자들이 알트코인 거래를 선호하는 만큼, 프로젝트에 대한 더 촘촘한 검증이 필요하다.

안유리 기자 inglass@

금융의 모든 순간

미국주식 투자, 알람은 끄고

NH농협금융

24시간 NH투자증권을 켜자

NH투자증권이 드리는 해외 주식서비스

- ▶ 해외주식 수수료 거래
- ▶ 해외주식 직입식 서비스
- ▶ 월배당 미국주식
- ▶ 미국주식 공모주 청약

언제까지 알람 맞춰가며 미국주식 하실래요?
이제 알람은 쏙 끄고! NH투자증권만 딱 켜세요!

NH투자증권에서는 24시간 미국주식 거래가 가능하니까요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자산가격 변동·환율변동·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0.25%(미국, 온라인 기준) 및 제비용 0.0008%(미국주식 기준, 매도시, 1센트 미만일 경우 1센트 부과, 온/오프라인 동일, 국가별 상이발생하며, 기타 수수료/제비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 24시간 거래] ※미국 주간거래 서비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금융산업규제국이 승인한 대체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지원※ 미국 주간거래 미체결 주문은 프리마켓, 정규장, 애프터마켓으로 연결되지 않고 주간거래 종료 시 취소되며 증거금 해지는 주간거래 장 종료 후 순차적으로 처리 ※거래량이 매우 적어 가격변동이 크거나 또는 가격이 왜곡될 수 있음. ※당일 권리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당사 또는 거래소에서 매매를 제한할 수 있음 ※위 사유 외에도 시세확인 및 주문전송이 정규장 대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23-00859호 (2023.03.15 ~ 2024.03.14)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尹 “수출진흥이 곧 민생… 기업 맘껏 뛸 수 있게 규제혁파”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

FTA 통한 기업 운동장 넓힐 것
2조 규모 수출 패키지 우대보증
R&D 지원 통한 주력상품 다변화
2027년 ‘수출 톱10’ 진입 목표
청년무역인 6000명 양성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과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 여러분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면서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도전정신 이라면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그 이상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영업사원인 제가 우리 기업과 무역인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축하 도중 기업인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영국, 인도, 중동 국가 등과 FTA로 수출길, 여러분의 운동장을 계속 넓히겠다”며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최 대한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 및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 계획을 밝히며 “2027년까지 청년 무역 인력 6000명 양성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등 유망 스타트업의 전담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며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의 도전은 매 순간 ‘감동의 드라마’였다”며

가발기업을 이끌어온 전병직 대표, 현대차 이충구 전 사장, ‘포니’ 개발을 함께한 이수일 전 기술연구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박수를 요청했다.

세계 경제가 고금리,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와 글로벌 안보 위기를 마주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우리 기업이나 홀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

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무역의날 기념식에서는 무역유공자 596명과 1704개 수출기업이 수출 성과 달성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손보익 엘엑스세미콘 대표이사,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대표이사, 전세호 심텍 회장, 윤종찬 비엠티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수출의 탑은 현대자동차(300억 달러), LG이노텍(100억 달러), 현대로템 주식회사(10억 달러), 대동(6억 달러)에 돌아갔다.

행사장에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무역의 성장궤적과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도록 특별 전시장이 마련됐다. 특별 전시장에서는 1960년대 수출산업화를 시작으로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1990년대 주력산업 성장, 2000년대 이후 IT·첨단산업 수출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경제 및 무역 발전사가 소개됐다. 1960년대 주력 수출품 가발에서부터 포니(최초 수출 국산차), CDMA 휴대전화, 1기가 D램 등 세계 최초 개발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현재의 자동차·조선·반도체 강국의 근간이 된 주요 제품과 함께 방산(K-2 전차, FA-50 등), 원전, 케이팝·푸드(라면)·콘텐츠 등 신수출 유망 품목이 전시됐다.

세종·서병권 기자 rby@최영훈 기자 choiyoungkr@

“韓경제 꽃샘추위… 물가안정·구조개혁 주력”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간담회

2기 경제팀, 정책 키워드 제시
민생·리스크 관리·역동경제 초점
脫중국 오해… 시장다변화 취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꽃샘추위”에 비유했다.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로 향후 우리 경제 전망은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정책 과정은 민생 안정,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역동 경제”를 향후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가 없다는 말도 하는데,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보장하려는 것과 무슨 무슨 경제를 추구한다는 것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임기 내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에 최 후보자는 “구조개혁을 자세히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다만 개인적으로는 역동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다. 그래야 경제가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민간과 혁신은 시장 중심의 혁신활동이 일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 첨단기술 발전, 노동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세부적인 세제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언급했다. 다만 “세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원조달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미래세대 또는 현재 세대 내부에서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의 측면도 강하다”고 말했다.

연내 종료하는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추경호) 부총리에게 여쭙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연

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과학기술이 경제의 기본이고, 성장 원천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다만 이제 성장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고 질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장 크게 바뀌어야 하는 게 과학기술 정책”이라며 “선도형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그렇게 R&D를 재편성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전체적인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시장 수급에 따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대중국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탈중국 선언을 했다고 하기에 깜짝 놀랐다.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며 “글로벌 교역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병권 기자 sbg1219@

최태원 회장 “한일 경제협력체 EU처럼 단일시장 모델로 가야”

2023 TPD 개막연설

“에너지·반도체 등 많은 시너지 가능
향후 中·러 동참…동북아 평화 도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국과 일본이 유럽연합(EU)과 같은 단일 시장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발전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인 최 회장은 4일(현지시간) 학술원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마련한 ‘2023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 이하 TPD)’에 참석해 최근 도쿄포럼에서 언급한 한일 경제협력체 구상을 보다 구체화했다.

최 회장은 ‘한일 관계의 새 시대, 그리고 한미일 3자 협력’을 주제로 열린 첫 세션에서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많은 혜택을 누려왔으나 지금은 그 혜택이 사라지고 있으며, 큰 시장이었던 중국은 이제 강력한 경쟁자로 바뀌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야말로 이를 타개할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 문제와 인구 감소, 낮은 경제성장률과 같은 문제에 함께 직면해 있으며, 지금의 경제적 위상을 더 이상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EU와 같은 경제 협력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U도 처음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철강과 석탄 같은 산업에서의 경제 연합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면서 “한국과 일본도 에너지와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많은 시너지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린 ‘2023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에서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그룹

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강력한 경제 동맹을 맺어 큰 시장으로 성장한다면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돼 결국은 북한 문제 등 동북아 전체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열린 갈라 디너에서 최 회장은 한일 경제협력체가 미국과 협력한다면 3국의 경제공동체는 30조 달러 이상의 거대 경제권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TPD는 한미일 3국의 전·현직 고위 관료와 세계적 석학, 싱크 탱크, 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의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경제 안보 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지성 플랫폼으로 2021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과 일본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첫날에는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 타미 덕워스 상원의원(일리노이주), 빌 해거티 상원의원(테네시주), 토드 영 상원의원(인디애나주) 등이 참석했다. 둘째 날에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존 오소프 조지아주 상원의원 등이 TPD를 찾았다. 송영록 기자 syr@

‘전세임대’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LH가 시세 30% 수준으로 재임대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방안

정부가 5일 ‘전세임대’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가구, 신탁 전세사기 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재임대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경·공매 이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내주는 기존 지원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다가구 피해 주택은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는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이므로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생빌라 피해자에게는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하는 방침이다.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신탁등기가 말소

다가구, 임차인 전원 동의 없어도 후순위 임차인 뜻 따라 LH 통매입 근생빌라는 인근 주택 전세임대

경·공매 절차 대행비용 전액 지원
결정통지 온라인처리 시스템 구축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하다. 신탁등기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전세임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경·공매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보완책도 밝혔다. 먼저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공매 대행비용은 정부가 70%를 지원하던 것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경우에는 인당 140만원 한도 내에서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을 소급해 지원한다. 또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정보가 등록됐더라도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소급해 연체정보를 삭제한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절차

는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피해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지금은 피해자들이 개별 기관마다 찾아다니며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지원 방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부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인근에는 금융상담에 특화된 은행 지점을 별도로 지정해 원활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초 상담 정보부터 피해자 신청 현황, 희망 지원책 등 피해자별 상담 이력을 관리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인 기자 oin@



국무회의의 참석하는 한동훈·이영 장관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무용품 산다면서 스마트워치, 역대 외유성 해외출장

‘국민 혈세’ 제돈처럼 쓴 공무원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14곳 적발

#A시정 소속 주무관 등 5명은 지난해 관내 대형문구점에서 사무용품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개당 30만 원 상당의 ‘깡력시워치’ 5대를 구매해 각자가 사적으로 사용했다.

#공공기관 B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면서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직원 격려 차원의 해외출장 명목으로 소속 직원 16명이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을 방문하는 등 외유성 해외출장비 1억1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안전용품 구매 등에 사용돼야 하는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이외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 및 체재비, 안전화·안전모 등 안전용품 등에 사용된다. 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울산·세종·경북·울산 동구·강릉·상주·

남원·구례·영동 등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충북교육청·강원교육청·부산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9개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하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어촌공사, 철도공단 등 공직유관단체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국외 출장 여비를 집행했고, 일부 지자체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 하드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의 경우,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해 필요한 경우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를 고가의 스포츠 의류·신발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이를 지급하는 등 9개 기관에서 총 6억 4076만 원가량이 부당하게 집행했다.

정대한 기자 vishalist@

저탄소 친환경 기업
사람중심 가치창출 기업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
ESG 경영 선도 기업

Action for Positive Change

S
E
G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금융투자 파트너

교보증권이 함께합니다

2021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우수B 선정
2022 KIFCA 최초발간부문 우수상 수상
2023 KIFCA 최초발간부문 우수상 수상

교보증권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고객가치를 향상시키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도전과 성의
고객중심
정직과 성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식거래 시 온라인 매매 수수료는 0.149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3호-02637호(2023.07.24 ~ 2026.07.23)

KYOBO 교보증권

“정신건강, 국가 어젠다로… 청년 검진주기 10년→2년”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을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어젠다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리상담 대상을 연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층의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예방·치료·회복 등 획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정신건강정책’ 틀을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

100만명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극단적 선택 50%로 감축 추진 조현병·조울증까지 검사 확대 직업트라우마센터 9개소 확충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았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비전으로 100만 명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자살률 50% 감축을 추진한다. 먼저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윤 정부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제

공한다. 내년 중·고위험군 8만 명을 시작으로 2027년 50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또 카카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연계해 온라인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내년 7월부터 1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상담번호는 109로 통합하고, 상담원을 충원한다. 청소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관계망(SNS) 상담도 도입한다.

청년층에 대해선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조현병·조울증까지 확대하고, 검진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대학 내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 심리지원도 강화한다. 직장인에 대해선 중대산업재해 경험

자와 감정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 23개소로 9개소 확충한다.

아울러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 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의료 질 확보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상급종합병원 기준 95% 인상하고, 치료수가를 신설한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선 정신재활시설과 복지서비스를 개발·확충하고, 정신요양시설을 장기적으로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정신건강 전문요원 양성을 올해 1만9400명에서 2027년 2만280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인건비 단가도 내년 3840만 원 이후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신건강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세종=김지영 기자 jye@

“반도체 봄 일찍 왔다… 올 성장률 1.4% 달성할 것”

3분기 GDP 전 분기比 0.6%↑ “반도체메모리 가격 하락세 주춤 수출·생산 늘어 회복국면 진입”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GDP 증가율) 전망치인 1.4% 달성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업황도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5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6% 증가했다.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1.4% 증가했다. 건설업은 건물건설, 토목건설이 늘어 2.3%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이 줄었으나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늘어 0.3% 늘었다.

지출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서비스(음식숙박, 오락문화 등)를 중심으로 0.3%, 정부소비는 사회보장현물수혜(건강보험급여비 등)가 늘어 0.2% 각각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2.1% 증가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줄어 2.2%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3.4% 증가했으며 수입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3% 늘었다.

반도체 등 업종을 포함한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률도 두드러졌다. 3분기 정보통신부문 수출 증가율은 9.6%로 2020년 4분기(9.9%) 이후 최고치를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3.3% 올랐다. 오름세는 다소 둔화했으나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5일 통계청의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13.6% 올라 2021년 5월 이후 2년 6개월 만의 최고 상승폭을 기록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iak@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 대한 정보통신 부문 수출 기여도는 2.4%포인트(p)로 전분기(1.3%p)보다 확대됐다.

최정태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 살펴보면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수출과 생산이 2분기 연속 전기대비 증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모리 가격 관련해 DDR5 계약가격은 4월 들어서 하락세를 멈춘 이후 8월 중에 상승 전환했

고, DDR4 계약 가격도 8월 중에 하락세를 멈추고 10월 들어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수출물량은 2분기 이후 전기대비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고, 11월 들어서 통관 수출도 14개월 만에 전년 동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3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0.5% 증가했고, 실질 GNI는 1.6% 늘었다. 실질 GNI는 2분기 마이

너스(-) 0.7%에서 증가전환했다. 명목 GNI 증가율은 명목 국외순수취요소 소득이 13조7000억 원에서 4조8000억 원으로 줄어 명목 GDP 성장률(2.2%)을 밑돌았다. 실질 GNI는 실질 국외순수취요소 소득이 10조3000억 원에서 5조7000억 원으로 줄었으나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무역손실이 34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축소돼 실질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

서지희 기자 jhsseo@

페배터리 리튬·니켈 추출해 UAM 등 모빌리티 자원으로

환경부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 등 희소 금속을 추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자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5일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폐배터리 순환 경제 산업생태계 조성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착공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박용선 경상북도 도의회 부의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관련기관 및 인근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이번 클러스터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폐배터리 발생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서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을 추출해서 배터리 제조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폐배터리는 2025년 3만여 개, 2030년 10만여 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폐배터리를 도심항공교통(UAM), 선박, 드론,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하고 있다. 폐배터리에서 나온 희소 금속 등 광물자원이 미래 모빌리티 생산의 핵심 자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녹색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판촉,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클러스터 조성에 나섰다.

총사업비 485억 원을 들여 1만7281㎡ 규모로 들어서는 클러스터는 배터리산업 진흥 및 연구·실증화시설을 갖춘 연구지원단지와 블루밸리, 영일만 산업단지 내 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입주하는 기업집적단지로 구성된다. 예상 준공일은 2025년 6월이다. 주요 실증시설로는 블랙파우더(BP) 제조, 유가금속 추출(용매추출), 폐수처리 공정시스템, 배터리 성능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블랙파우더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포함된 검은색 분말로 배터리랙, 스크랩 등을 파·분쇄, 선별을 통해 생산한다. 기업 집적단지에는 배터리 관련 기업이 입주하게 되며, 입주기업은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오늘부터 아이폰으로 ATM 입출금 할 수 있다

오늘부터 아이폰으로도 은행 현금자동 입출금기(ATM)에서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와 금융결제원 및 17개 국내은행은 스마트폰 기종의 제한 없이 모바일현금카드 앱 및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해 은행권 ATM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를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 의장은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맡고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17개 국내은행

ATM에서 실물 현금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모바일현금카드 앱(모바일뱅킹 앱)으로 현금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NFC 방식 외에도 QR코드 방식으로 스마트폰 기종 제한 없이 ATM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는 NFC(근접무선통신) 인식이 가능한 ATM에서, 안드로이드폰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한은 측은 “서비스 도입을 위해 금융결

제원에 사업을 위탁한 이후 약 9개월 동안 서비스 기술 개발, 개발 참가은행 ATM에의 기술 적용 등의 과정을 거쳤다”며 “약 4만9000대 ATM(10월 말 기준)에 QR코드 방식의 입출금 기능이 장착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모바일 현금카드 이용자의 현금 이용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또 향후 모바일뱅킹 앱 및 결제 플랫폼 앱과 서민금융기관·자동화기기사업자(CD/VAN사) ATM으로까지 도입을

QR코드 도입으로 기종제한 없이 17개 국내은행 4만9000대 장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모바일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해 은행계좌와 연계하는 이용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바일현금카드 앱에서 제공하는 ‘ATM 위치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ATM 위치지도(금융MAP) 등도 이용할 수 있다.

협의회 측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결제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급결제시장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지희 기자 jhsseo@

미래의 길을 잇는 반도체 SK하이닉스로부터

SK하이닉스는 첨단 반도체 기술로
ICT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팬데믹 기간 제외〉

물품 파는데 87일 10년來 最 과잉 재고에 ‘세계 경제 먹구름’

中 경기 악화·美 소비 둔화 영향
산업군 70% 재고 소진 기간 늘어
주요 제조사 재고액 10년來 최대

글로벌 제조업계의 재고조정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글로벌 제조사들의 평균 재고자산회전일수(재고 물량이 판매되기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는 87.2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급감했던 2020년 2분기(91.6일)를 제외하면 최근 10년 사이 가장 기록이다.

40여 개의 전체 제조 산업군 가운데 70%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산업·기계 분야가 10년 만에 가장 긴 112일에 달했다. 재고 조정이 빠르게 진행된 컴퓨터 하드웨어(56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이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계의 과잉 재고 상황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제조업의 경우 상품의 수명이 길어서 재고자산 회복에는 최소 1분기 이상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재고악화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중국 경제는 각종 부양책에도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았던 미국에서도 소비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가 가게 경제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머리가 서서히 고

갈된 데다가 코로나19 기간 유예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까지 재개됐다.

산업군 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PMI(구매관리지수)도 대체로 침체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진 49.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5개월 연속으로 경기 확장과 수축을 가르는 기준치 50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과 유로존 제조업 PMI도 50을 밑돌면서 위축세를 이어갔다.

애초 글로벌 제조사들은 올해 공급망 정상화를 맞이해 그동안 쌓아뒀던 재고를 털어낼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물류 병목 현상으로 재고가 산처럼 쌓여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4분기 주요 제조사들의 재고액은 2조2014억 달러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아프리카 이재민 위로하는 위성TV
올여름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온 동아프리카가 가을 폭우에 직격탄을 맞았다. 케냐 정부는 이번 폭우와 홍수로 120명이 사망하고 9만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케냐 북동부 타나 리버 카운티의 가르센 마을에서 대홍수로 집을 잃은 한 가족이 적십자사에서 받은 텐트로 몸을 피했다. 텐트 앞에 태양열 집전판과 오른쪽 뒤편에는 접시모양의 위성TV 안테나가 달려있어 눈길을 끈다. 가르센(케냐)/AP뉴시스

中 요소수 내년 1분기까지 수입 못한다

中 기업 15곳 수출제한 자율협약
“내년 총량 94만톤 안 넘기기로”

내년 1분기까지 중국발 요소수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다.

5일 관련업계와 중국화학비료망 등에 따르면 중농그룹과 중화그룹 등 중국 현지 주요 요소비축·무역기업 15곳은 “내년 수출 총량이 94만4000톤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중국 정부 차원의 규제가 아닌, 요소수 수출과 관련한 자율협약인 것으로 전

해졌다.

해당업계 분석가로 알려진 푸야난은 “최근 업계가 수출을 전면 제한한다는 소문이 또 나왔는데, 이는 내년 1분기까지 수출을 불허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일부 항구에선 수출 증빙서류를 갖고도 수출할 수 없고 화물이 항구에 쌓여 있으며 항구 화물이 회수되는 현상도 있다고 한다”고 화학비료망을 통해 전했다.

한국은 올해 10월 기준 산업용 요소의 약 92%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푸야난의 분석이 맞다면 한국 기업들은 당

분간 요소 조달에 애를 먹을 전망이다.

앞서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자국 기업이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 정부 결정에 정치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 당국도 자국 내 요소 수급 문제에서 비롯됐으며 한중 간 공급망 협력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여야는 2021년 일어난 요소수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에 공급망 다변화 등 대책을 촉구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주러 대사 만난 푸틴 “한국과 관계 회복 준비됐다”

우크라 전쟁 이후 수개월째 긴장감
전문가 “러북, 한미보다 응집 약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우리와 대립각을 세웠던 러시아가 관계 개선의 손짓을 보내왔다. 러시아는 최근 들어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러·북 협력이 러시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4개국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한국을 거론했다. 그는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에게 “러시아와 한국 관계는 불행하게도 최고의 시기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협력이 양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 궤도로 복귀할지는 한국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해 러·북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계속 악화했다.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도주의적 지원만 고집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베데옌하 박람회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모스크바/타스연합뉴스

말했다.

그러자 같은 달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무기 공급을 시작한다면 이번 분쟁에 있어 특정 단계에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6월 우크라이나를 향한 외국 지원이 바닥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꼭 집어 거론했다. 그는 “한국 재고도 조만간 바닥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오래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잠잠했던 양측의 날 선 공방은 9월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장을 모스크바로 초대해 정상회담하면서 재개됐다. 당시 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협력과 우주개발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같은 달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양국 모두를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국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언 직후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이 대사를 불러 “양국 관계에 심각한 손상”이라며 항의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추측성 발언들은 도발적이고, 서방 집단이 벌이는 침략 전쟁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련의 불화에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준비가 됐다”며 우리에게 손을 내민 데에는 북한과의 협력만으로는 국제무대에서 어렵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러·북 연합은 한미일보다 응집력이 약하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이같은 협력에 맞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내년 S&P500지수 최악 폭락” “경기침체 피하면 19% 오를것”

월가 내년 美 증시 전망 엇갈려
골드만·모건스탠리, 중립 의견

미국 월스트리트 주요 은행들이 내년 미국 경제와 증시 전망을 두고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드에 따르면 캐나다 금융정보업체 BCA리서치는 “내년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S&P500지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폭락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신속하게 금리를 인하할 경우 증시 급락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 침체가 압박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하지 않는 한 내년 여름 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작다”라고 덧붙였다.

JP모건체이스도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주식이 고평가된 상황에서 고금리와 소비 둔화,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으로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 확신하지 않는다는 의견

이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BoA는 “기업들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에 적응해 왔다”면서 “우리는 거시적 불확실성의 최대치를 이미 넘어섰다. 시장은 상당한 지정학적 충격을 흡수했다”고 분석했다.

독일 도이체방크도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경제 성장률이 견조하게 유지되면 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가까워졌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기 침체를 피할 경우 S&P500지수는 19%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과 달리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등은 중립을 유지했다.

골드만은 “지나해 이후 미국 증시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면서 “내년 S&P500지수는 현재 수준보다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건스탠리 역시 “내년 주식 시장이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며 “예상 수익률은 7% 정도”라고 설명했다. 전아현 기자 cahyun@

블룸버그 “한국인, 미국 레버리지 ETF 올인”

테슬라 추종 상품 韓 비중 35%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올인’했다.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한국 개인투자자들, 미국 레버리지 ETF에 올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 유명 레버리지 ETF 상품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인 투자 비중이 20%를 넘는다고 소개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에 1.5배 확대 배팅하는 레버리지 ETF는 한국인의 투자 비중이 무려 35%에 달했다. 팡(FAANG: 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

릭스·구글) 및 기타 혁신 기술주에 3배 배팅하는 ETF에 대한 한국인 투자 비중은 28%로 집계됐다. 또 인텔, 브로드컴, 퀄컴 등 미국에 상장된 30개 반도체 회사의 등락률을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반도체 3배 ETF(SOXL)에 대한 한국 투자자 비중은 19%에 이른다.

한국에서의 미국 레버리지 ETF 투자 열풍은 공식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블룸버그가 한국에탁결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올해 미국 상장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투자 규모는 23억 달러(약 3조 원)로 이는 전년의 거의 3배 수준이다. 이진영 기자 mint@

“땅으로 바다로”… ‘해외 전력망’ 발 넓히는 전선업계

국내 전선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이 본격화하고 있다.

업계 ‘빅(Big) 2’로 꼽히는 대한전선과 LS전선은 핵심 지역에 법인을 신설하는 등 집중 투자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한전선은 지중 전력케이블에, LS전선은 해저 전력케이블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최근 해외 법인 ‘Taihan Electric Australia Pty Ltd.’와 ‘Taihan New Zealand Ltd.’를 설립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영업 법인으로, 대한전선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대한전선이 오세아니아에서 법인을 따로 세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오세아니아 시장은 예전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공들여 왔던 시장”이라며 “작년 호주에서 대규모 전력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고 판단해 이번에 영업 법인을 따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전선 빅2’ 해외 진출 본격화

대한전선

최근 호주·뉴질랜드법인 설립
오세아니아 전력망 성장 전망

LS전선

HVDC 해저케이블 집중투자
동해사업장에 VCV타워 준공
美 초고압 해저케이블 공장도

대한전선은 지난해 7월 호주 시드니 일대 대규모 전력 공급 프로젝트인 ‘PSF’(Powering Sydney’s Future)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바 있다. 대한전선은 향후 수십 년간 시드니와 인근 지역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지중 전력망



LS전선 동해사업장의 HVDC 전용 공장 전경. 사진제공 LS전선

을 구축했다. 호주에서 가장 높은 전압인 330kV급 전력망으로, 대한전선은 설계·자재 납품·시공·상업 운전 등 전 과정을 수행했다. 수주 규모는 1400억 원에 달한다. 법인 설립으로 대한전선의 오세아니아 시장 선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선은 2004년 호주에 33kV 케이블을 납품하면서 오세아니아 전력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뎠다. 이후 132kV, 275kV 케이블을 추가로 수주, 2009년에는 뉴질랜드에서도 220kV의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영토를 넓혔다.

오세아니아 외에도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에서도 초고압 지중 전력망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최근에는 해저 케이블 수요가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지중 전력 케이블 위주 사업들이 많다”며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 발전과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LS전선은 업계에서 크게 주목받는 해저 케이블 시장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특히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 생산에 적극적이다. HVDC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 전력을 고압 직류로 변환해 필요한 곳까지 송전된 뒤 다시 교

류로 바꿔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가 간 장거리 연결에 효율적이다. 올해에는 동해 사업장에 320kV 이상의 HVDC 해저케이블을 전용 생산할 수 있는 VCV타워를 준공해 공급력을 대폭 키웠다.

LS전선은 8월 해저케이블 시공업체인 LS마린솔루션까지 인수하면서 기존 자회사인 LS전선아시아와 함께 ‘제조-시공’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향후 베트남과 대만 등 기존 강점인 아시아 시장에서 ‘턴키’(일괄 수주) 확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초고압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법인 ‘LS GreenLink USA Inc.’도 설립했다. LS전선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해저케이블 사업 확대 차원에서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정확한 투자 금액 규모나 부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한국타이어 형제의 난’ 2R… 성공 가능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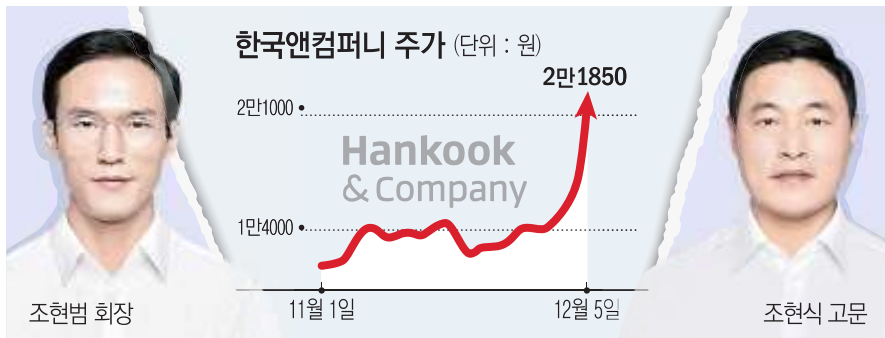
조현식 고문 한국엔컴퍼니 공개매수
조현범 회장 42% 지분 넘어서려면
유통 주식 대부분 확보해야 가능해

조양래 한국엔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식 한국엔컴퍼니 고문이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서며 2년 만에 ‘형제의 난’이 발발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조 고문의 계획을 비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조 고문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함께 한국엔컴퍼니 지분을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목표매입 주식 수는 총발행주식의 최소 20.35%에서 최대 27.32%다. 총매수자금만 3863억~518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 고문 측은 “최대 주주의 횡령, 배임 이슈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어 경영권을 확보해 이를 안정화한 뒤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엔컴퍼니가 공시한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고문은 현재 한국엔컴퍼니의 지분 18.93%를 보유하고 있다. 목표한 공개매수 규모를 더하면 조 고문의 지분은 39.28%에서 46.25%까지 늘어날 수 있다. 조 고문에 우호적인 자녀 조



회원씨의 지분 10.61%를 더하면 과반수가 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한국엔컴퍼니의 대주주인 조현범 한국엔컴퍼니그룹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42.03%다. 조 고문의 계획이 성공하면 대주주 자리가 위협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 고문의 계획이 사실상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한국엔컴퍼니의 주요 대주주는 조 회장, 조 고문, 조씨 등으로, 세 사람의 지분을 제외한 주식은 28.43%에 불과하다. 여기에 한국엔컴퍼니가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0.23%를 추가로 제외하면 시중에 풀린 주식은 28.2%까지 줄어든다.

즉 조 고문이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다른 주주들이 보유한 물량의 대부분을 확보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 고문과 MBK파트너스가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은 전일 종가 1만6820원에 18.9%의 프리미엄을 더한 주당 2만 원이다. 그런데 이날 한국엔컴퍼니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해 2만1850원으로 마감됐다. 공개매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공개매수를 할 정도로 매력적인 금액이 아닌 점, 조건부매수 계획인 점 등이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향후 주가 추이를 살펴봐야겠지만 공개매수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된 상황에서는 계획된 공개매수가 어렵다”며 “목표한 공개매수 규모가 유통되는 주식 물량에 비해 높게 잡혀있는 부분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민재 기자 2mj@

BMW, 수입차 왕좌 탈환하나

올 신차 점유율 28.52%
벤츠보다 0.57%p 앞서

BMW가 7년 간 이어진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의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타이틀을 뺏아낼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BMW는 올해 11월까지 6만9546대(점유율 28.52%)를 판매하며 6만8156대를 판매한 벤츠(점유율 27.95%)보다 판매량에서 앞서고 있다.

BMW와 벤츠의 치열한 1위 싸움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벤츠는 8만976대를 판매하며 BMW(7만8545대)를 따돌리고 수입차 판매 1위 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지난해도 11월까지의 누적 판매량 집계에서 BMW가 188대차이로 벤츠를 앞섰다. 그러나 벤츠는 마지막 달인 12월 9451대를 판매하며 6832를 판매한 BMW의

1위 탈환을 저지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벤츠는 8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지키게 된다.

KAIDA는 11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가 2만4740대로, 전년 동기 2만8222대보다 12.3%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11월까지 누적 판매 대수는 24만381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만3795대보다 3.9% 줄었다.

11월까지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순위는 BMW, 벤츠, 아우디(1만6650)가 3위권을 형성했다. 볼보(1만5410대), 렉서스(1만2191대), 포르쉐(1만422대) 등이 1만 대 클럽에 이름을 올리며 뒤를 이었다.

지난달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벤츠 7168대, BMW 7032대, 볼보 1640대, 아우디 1392대, 렉서스 1183대 등을 기록했다.

정운영 KAIDA 부회장은 “11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은 일부 브랜드의 신차 효과, 적극적인 프로모션 및 물량 확보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재 기자 2mj@

간판 바꾸는 LS전선아시아… 해저케이블·히토류 공급 신사업

공시 통해 신규사업목적 추가
‘LS에코에너지’로 사명 변경

LS전선아시아가 해저 케이블 시장 확대와 히토류 공급 등 새 먹거리 찾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LS전선아시아에 따르면 최근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를 통해 해저케이블 및 히토류를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신사업 진출에 맞춰 사명도 ‘LS에코에너지’로 변경한다.

LS전선아시아는 전력, 통신 케이블 중심의 사업을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등으



LS전선아시아 베트남 생산법인 LSCV 전경. 사진제공 LS전선아시아

로 넓혀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써 도약을 꾀하고 있다.

앞서 10월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기업 페트로베트남 자회사 PTSC와 해저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해저케이

블 사업의 스타트를 끊었다.

히토류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LS전선아시아는 히토류 산화물 사업을 추진, 해외에서 정제를 마친 ‘네오디뮴’ 등을 국내외 종합상사와 영구자석 업체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신사업이 본격화되면 실적성장세도가 팔리질 것으로 예상된다. LS전선아시아는 3분기 기준 11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최대 규모다. LS전선아시아 관계자는 “베트남 생산법인 LS-VINA의 고부가가치 초고압 케이블의 유럽 수출 확대가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삼성·SK·현대차 등 21개사 참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주요 기업 21개사가 참여한 ‘글로벌 경제 현안 대응 임원협의회’를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임원협의회’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한국을 둘러싼 경제안보 환경과 한국 경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임원협의회’는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 21개사로 구성되며, 각사의 글로벌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임원이 참여한다. 향후 분기별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

시다발적 전쟁 발발, 공급망 재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각국의 보호주의 통상 정책, 다양한 환경 규제 신설 등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대외 리스크가 ‘뉴노멀’이 된 상황”이라며 “빠르게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국제 무대 속에서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이자”고 말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특별 연사로 참여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과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 우리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와 경제안보 외교 추진 전략을 소개하면서, 이를 위한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쏘카 창업주〉

쏘카 지분 또 늘린 이재웅… ‘경영권 분쟁’ 불씨 살아나나

창업주 vs 롯데렌탈 ‘지분경쟁’

카셰어링 업체 쏘카의 창업주 이재웅(사진) 전 대표와 2대주주 롯데렌탈 간 지분 경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으나 이 전 대표를 비롯해 쏘카 측 지분 확보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달 말께부터 이달 초까지 장내에서 쏘카 주식 19만4000주(0.58%)를 사들였다. 주식 취득에는 이 전 대표 개인 자금 30억 원가량이 쓰였다. 이에 따라 쏘카 최대주주인 에스오큐알아이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분율은 37.81%에서 38.43%로 0.62%포인트(p) 늘었다. 에스오큐알아이는 이 전 대표가 83.3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전 대표 측과 롯데렌탈의 지분 경쟁은 올해 들어 롯데렌탈이 SK가 보유한 쏘카 지분을 전량 매입하기로 하면서 불

李, 지난달 말부터 19.4만주 매입 2대 주주 롯데렌탈 지분 계속 늘려 박재욱 대표 “우호적 협력·경쟁”

거졌다. 롯데렌탈은 작년 3월 쏘카 지분 11.8%를 1746억 원에 인수했다. 이어 올해 8월 말 SK가 보유한 쏘카 지분 17.9%를 전량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1차 매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 연내에, 2차는 내년 9월에 이뤄진다. 여기에 최근 에스오피오오엔지의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 행사 등으로 1.8%가량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롯데렌탈의 쏘카 지분은 34.7%까지 확대됐다.

롯데렌탈의 이러한 움직임에 쏘카 경영진도 자사주 매입으로 응수했다. 박재욱 현 쏘카 대표가 10월 64만8948주의 자사주를 97억 원을 들여 사들였다. 2%에 가까운 지분이다. 이 전 대표 역시 이

번 지분 매입에 앞서 48억 원의 개인 자금을 들여 1%가량의 지분을 장내에서 확보했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쏘카 측과 롯데렌탈 모두 지분 매입은 경영권 분쟁과 무관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동차를 이용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규모의 경제와 플랫폼 파워를 입증해 수익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쏘카 2.0 전략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매입 취지다. 박 대표 역시 지난달 콘퍼런스 콜에서 나온 관련 질의에 대해 “(롯데렌탈과) 우호적으로 계속해 협력 관계를 만들 계획이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협력하고 경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선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쏘카 측 지분 확보 움직임이 경영권 분쟁 우려와 완전히 떼놓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한다. 롯데렌탈 역시 대외적으로 장내매수 취득 계획이 없고 쏘카와 협업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류제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말 보고서를 통해 “롯데렌탈의 지분 매입은 의미 있는 행보로, 롯데렌탈이 쏘카의 사업영역인 카셰어링 2위 사업자인 그린카의 모회사이기 때문이다. 경

쟁사의 지분을 매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롯데렌탈은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현금성 자산 3787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쏘카 지분의 추가 매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신제품 참여 기회 늘리고 부담 대폭 완화

中企 공공구매 실효성 높인다

‘119조’ 공공구매제도 개선 중기부·공공기관 조사도 통합 핵심부품 국산제품 사용 유도

#공기 주입식 매트리스 생산업체인 앤실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혁신상’을 받았지만, 공공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매트리스’ 제품의 직접생산 기준이 기존 기술·공정 방식에 따라 스프링 기반으로 작성돼서다.

정부가 119조 원 규모에 달하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을 높인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함께 신제품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산부품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겸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내수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소기업 제도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핵심 부품의 국산 부품 사용 활성화 등 내용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구매시장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사 형태의 법정인증(HACCP 등)을 보유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확인 현장실태 조사’

를 생략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복 조사는 통합한다. 납품 중소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중기부와 공공기관이 직접생산 준수 여부를 각각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합동으로 추진한다. 같은 위반 사항으로 입찰 참여 제한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도 내놴다. 구매 공공기관(856개) 대상으로 비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태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생산 제품 구매 강화를 검토한다. 구매 실적을 하위로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의무구매율(50%) 미달성 기관을 조사해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사전 협의를 하지 않으면 대외 공표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조달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민수 시장 진출을 유도한다. 중소기업간 경쟁시장 진출 3년 경과 후에도 매출의 90%가 공공기관 납품에서 발생하는 기업 등이 대상이다. 공공구매론 참여은행 6곳과 기술보증기금 간 협약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납품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는 확대하면서 조달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민수시장 진출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친환경
환경부

착한 선택,
착한 제품

지구를 지키는 착한 소비
환경표지 로고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찾아보세요!

문구, 책상, 노트북, 의자, 에어컨, LED 램프, 방향제, 식기세척기, 고무장갑, 주방용 세제, 세탁용 세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진공청소기, TV, 화장지, 의료, 침대 및 침구류, 창호, 대변기, 린스, 바디워시, 샴푸

자세한 내용은 환경표지 누리집
(el.keiti.re.kr)을 확인해주세요

미국서 잘나가는 ‘클리오’ “내년 中·日시장 확대할 것”

클리오가 내년 동아시아 최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 시장을 확대한다. 기초화장품 브랜드의 미국 아마존 매출이 급성장한 것과 함께 해외 시장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화장품 브랜드 클리오는 내년 중국과 일본의 성장을 꾀한다. 클리오 관계자는 “내년엔 일본과 중국 시장에서 다시 성장시킬 계획”이라

며 “일본 시장에서 ‘클리오’, ‘페리페라’ 등 색조 위주로 하고 있지만 새 브랜드 ‘심플레인’과 ‘타입넬비’를 11월에 출시한 이후 내년 초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시장에서 라쿠엔, 큐텐 등 온라인과 드럭스토어, 바라이어티샵, 로프트 등 오프라인 매장도 함께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클리오는 색조 화장품 브랜드 클리오는 주력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기초화장품 브랜드 ‘구달’의 성장과 함께 올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금융을 넘어 환경까지 KB증권이 함께 합니다

CHANGE *_b
OUR LIFE

One
life



Change our life
플로깅!

'22 양양 인구해변
'23 부산 해운대

개비증권 그린로드
(도심 숲) 조성!

'22 난지 캠핑장
'23 천왕산 캠핑장

자원순환 및
탄소저감 시행!

'22 제주 푸른컵(공유컵) 제작
'23 사내 폐가전 회수, 재활용

*_b KB증권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5G로 전환... 4배 빨라진다

전국 시내버스에서 기존보다 4배 빠른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전국 2만 9100대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완전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버스 내 공공와이파이 속도가 종전보다 4배 이상 빠른 300~400Mbps로 개선됐다.

공공와이파이는 2023년에 신규 구축한 공공장소 4400개소를 포함해 총 5만 8000개소의 공공장소에도 구축돼 무료 데이터를 제공해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이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개통식에서 “그간 공공와이파이는 국민이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통신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와이파이 7 등 신기술 시범 적용, 10G 유선 네트워크 기반 백홀 증설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추진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2022년 한 해에만 누적 접속자 92억 명이 이용했고 66PB(HD급 동영상 5796만 편 규

전국 시내버스 2만9100대

5G 백홀 기반 와이파이로 전환

속도 빨라지고 보안 우수성 높여

울 공공와이파이 4400개소 추가

내년 노후장비 '와이파이7' 교체

신기술 적용 등 품질 개선 추진

모)의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향후 △신기술 적용 추진 △상용 와이파이 개방 방식 개선 △공공와이파이 재배치 △운영 관리·장애 대응 체계 강화 해 국민이 안정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조경래 과기정통부 혁신네트워크팀장은 “내구연한(7년)이 경과된 와이파이4·5 기반의 노후 와이파이(1만4000대)는 2025년 중 와이파이7 기반으로 대개체를 추진하되 장애 발생으로 이용에 불편이 있는 와이파이5는 시범적으로 2024년부터 와이파이7으로 교체해 품질을 개선할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LTE → 5G 완전 전환

대상	전국 2만9100대 시내버스
효과	- 와이파이 속도 4배 (300~400Mbps) 이상 향상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기여

공공와이파이 사업 성과

- 전국 5만8000개소 무료 데이터 제공 (울 4400개소 신규 구축)
- 2022년 누적 접속자 92억명
- 66PB(HD급 동영상 5796만편 규모) 데이터 제공

향후 정책 방향

- 신기술 적용 추진
- 상용 와이파이 개방 방식 개선
- 공공와이파이 재배치
- 운영 관리·장애 대응 체계 강화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와이파이 6보다 2.4배 향상된 와이파이7은 2024년 세계 표준이 완성되면 공유기(AP)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와이파이의 기반이 되는 유선 네트워크 망을 10Gbps급으로 증속하는 등 고대역폭 네트워크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 폐쇄 등으로 이용자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해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해 영상통화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의 없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와이파이는 운영비를 분담하는 지자체와 협의 하에 도서관, 전통시장 등 방문객이 많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곳으로 재배치해 품질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유·무선 통신장애 시(재난 발생 위기경보 ‘경계’ 이상 발령) 통신 3사가 자동으로 상용 와이파이를 개방하

도록 2024년 상반기 내 개선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고 걱정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특히 공공와이파이 운영 및 장애 대응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정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나리 기자 nari34@



이호석 SK실터스 EQST 랩 담당이 5일 ‘2024 주요 보안 위협과 대응 전략 미디어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SK실터스

SK실터스 “AI비즈니스 원년... 보안위협 다가온다”

‘보안 위협 대응전략’ 세미나

“챗GPT와 같은 생성형AI를 활용하면 해킹 공격도 매우 쉽게, 높은 성공률로 시도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재우 SK실터스 EQST사업그룹장은 5일 서울 광화문 HJBC에서 2024년 5대 보안 위협 전망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미디어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이 화두였다면, 내년은 AI가 본격적으로 전 산업계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원년이 될 전망이다. 이에 AI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를 악용한 각종 해킹 공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그룹장은 “현재까지 생성형 AI를 활용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수준은 아직 초급에서 중급 사이로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이에 AI가 직접적인 공격하기보다는 AI가 약 40% 정도로 보조수단으로만 쓰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호석 EQST랩 담당은 “과거 해외에서 보낸 피싱 메일에 쓰인 한국어가

챗GPT 활용 사이버 공격 고도화 AI 통한 방어 연구도 활발히 진행

‘제조업’ 공격 20%... 업종 중 최다

‘제로데이’ 노린 공격 기승 부릴 것

어눌했다면, 이제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이러한 점을 쉽게 보완할 수 있다”면서 “즉 해외에서도 한국말로 쉽게 속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AI가 사이버 공격보다는 방어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SK실터스의 화이트해커 전문가 그룹 EQST(이큐스트·Experts, Qualified Security Team)가 맡았다. 단일조직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1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모의해킹, 신규 취약점 분석 및 진단, 신기술 연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QST는 이번 세미나에서 올해 직접 경험한 해킹 사고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사이버 보안 위협을 선정했

다. 올 한 해 발생한 업종별 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주요 취약점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EQST에 따르면 올해 국내 업종 중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 발생이 전체의 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용 솔루션의 취약점을 악용한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한 영향이었다.

이 담당은 “제조업체 공장 컨설팅에 들어가 보면 보안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투자하지 않은 채 해킹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거나 ‘두 번 당하지는 않겠다’라며 넘기는 곳이 많다”며 “중요 정보를 다루긴 하지만 보안이 허술한 1차, 2차 협력사를 통해 (공격이) 올라가는 형태가 많다”고 말했다.

EQST는 내년에 핵심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이를 막을 수 있는 패치가 발표되기 전을 일컫는 ‘제로데이’를 악용한 랜섬웨어 공격 전략도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 3월 발생한 최초의 연쇄적인 공급망 공격에 이어 내년에도 이같은 공격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N차 공격으로 연계가 되거나 주요 인프라를 노린 공급망 공격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티빙-웨이브, 합병 MOU 체결

‘토종1위 OTT’ 통합 논의 본격화

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SK스퀘어의 OTT 웨이브가 합병 논의를 위해 손을 잡았다. 통합이 완료되면 월간활성이용자수(MAU) 900만 명 이상의 대형 토종 OTT가 탄생할 전망이다. 넷플릭스의 독주에 속수무책이던 국내 OTT 시장이 흔들릴 것으로 관측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CJENM과 SK스퀘어는 전날 합병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다만 양측은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를 거쳐 주주 간 MOU를 체결했으나 현재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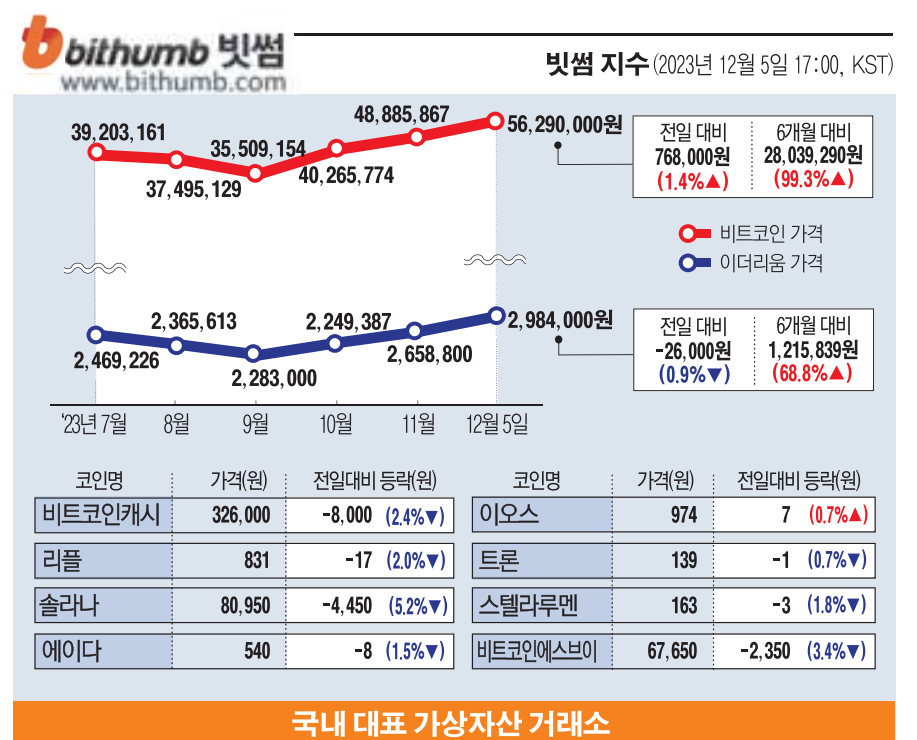
합병 법인 설립 시 CJENM가 최대 주주에, SK스퀘어가 2대 주주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CJENM은 티빙 지분 48.85%, SK스퀘어는 웨이브 지분 40.5%를 각각 보유한 최대 주주다. 양측은 실사를 거쳐 내년 초 본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유진 기자 newjean@

두 OTT가 합병한 데에는 규모의 경제로 콘텐츠 제작·투자력 등을 강화해 글로벌 OTT에 맞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넷플릭스가 사실상 국내 OTT 시장 1강으로 굳혔고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등이 신흥 강자로 치고 올라선 가운데 티빙, 웨이브는 콘텐츠 제작비 인상으로 매년 적자에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이다.

양사가 합병될 경우 약 933만 명의 MAU를 기록하는 대형 OTT가 돼 1위인 넷플릭스와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티빙은 10월 기준 MAU 510만 명, 웨이브는 423만 명을 기록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1위는 넷플릭스(1137만명, 2위는 쿠팡플레이(527만명)였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위기감에 힘을 합치기로 한 결과로 해석한다. 다만 양측의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와 양측의 지분 정리 등이 선행돼야 한다.



“내년 서울 오피스 ‘강세’ 이어질 것”

쿠시먼코리아 시장 전망

최근 2%대 공실률 역사적 저점
내년 3%안팎, 임대료 상승 지속
핵심상권 상가도 빠르게 회복
금리인상 멈추고 유동성 확대
10개월 후 상업용 투자 활성화

내년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올해처럼 견고한 수요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요 지역 리테일(상가) 시장도 코로나19 이후 부진을 딛고 상승 중이며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지속하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소비 축소와 금리 인상 기조 중단, 유동성 확대 등 경기 변동은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부동산컨설팅 업체 쿠시먼앤드 웨이크필드 코리아는 5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정진우 리서치팀장은 먼저 내년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올해처럼 견고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오피스빌딩 중 서울내 프라임급(연면

적 3만㎡) 빌딩은 내년에도 자연공실률(5%)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팀장은 “최근 2% 공실률은 앞으로 이 일을 하면서 볼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역사상 저점”이라며 “이 영향으로 오피스임대료 상승률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관리비 등을 고려해 5년 재계약을 진행하면 체감 임대료는 기존 대비 두 배 이상 올랐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희망 거래가격 차이로 거래 금액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팀장은 “지난해 오피스 거래 규모는 14조4000억 원 정도였고, 올해는 3분기 기준 6조5000억 원”이라며 “기업의 사옥 마련 목적 직접 투자 증가와 건물 전체가 아닌 지분 취득 형태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매도·매수자 사이의 기대가격 차이와 유동성 축소 영향으로 거래가 줄었다”고 말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 활성화 시기로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 이후 최대 10개월 뒤로 점쳤다. 정 팀장은 “유동성이 증가하면 시차를 두고 거래량이 증가한다”며 “오피스 투자 시장 살아나는 때는 금리 인상이 멈추고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점과 맞물린다”고 말했다.

서울내 핵심 상권인 명동과 홍대, 이태

원 일대 리테일 시장은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정 팀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까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지만, 지난해부터 대면 활동 관련 품목의 판매액이 늘었다”며 “신발, 화장품, 의복 등 관련 상권이 빠른 회복을 보였고 명동 상권이 대표적으로 되살아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90% 수준까지 줄어든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부터 꾸준히 돌아오는 만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과 홍대 등 주요 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물류센터 시장은 내년 공급량이 올해 대비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비용이 늘면서 인허가를 받아도 착공하지 않는 경우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정 팀장은 “최근 온라인에서 성장해 오프라인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브랜드가 많고, IT 기업 등은 여전히 강남 일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기업 입맛에 맞는 입차 공간을 찾는 일은 힘들 것”이라며 “내년도 공실률은 3% 전후를 기록하고, 임대료 상승세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부동산 규제 완화 지속 非아파트 중심 공급 확대”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지금 부동산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작하도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 주택공급 부족 우려 높아
3기 신도시·재건축은 물론
도심 소규모 형태 조기 공급
지자체와 협력방안 찾아볼 것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국민이) 많이 하고 계신다”며 “(이런)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는 지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해선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이른 시일 안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

을 찾아볼까 한다”고 말했다.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민생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매매가격이든, 전셋값이든, 전세사기 문제는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터지고 가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문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전세 시장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거래 안정성이 아직 담보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과거 오랫동안 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시사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한화 건설부문, 자원순환형 가구 서울역·포레나도서관 설치

한화 건설부문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자원순환형 가구’ <사진>를 제작·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이 제작한 자원순환형 가구는 테이블, 의자, 벤치 3종 총 48점으로 △서울역민자역사(커넥트플레이스서울역점) △포레나 도서관 등 9곳에 설치돼 이용객들에게 자원순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서울역민자역사는 국내 최대 규

모의 유동인구가 몰리는 대표역사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한화 건설부문 임직원들은 폐플라스틱 수거와 자유플로깅(plogging) 활동에 함께 참여했다. 이를 통해 수거한 플라스틱 120kg은 자원순환형 가구 제작에 모두 활용됐다.

수거된 투명 플라스틱은 3D프린팅을 통해 테이블과 의자로 제작됐으며, 유색 플라스틱은 초고성능콘크리트(UHPC)



와의 결합을 통해 벤치로 제작됐다. 초고성능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사용량을 줄여 탄소배출을 저감한다.

한진리 기자 truth@·사진제공 한화 건설부문

분묘 개장 공고 (제1차)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 공고 제2023-27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지번	분묘 기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구지리	98-11, 98-20, 98-21, 98-22, 98-23, 98-25, 98-30, 98-41, 98-42, 98-44, 98-45, 98-46, 98-8, 98-9, 224-5, 산1-4, 산47-7	약 50기
	죽장면 일광리	63-1, 292-1, 294, 308, 316-1, 318, 344-1, 357-1, 7-189, 산81-1, 산88-9, 산88-12, 산88-13, 산88-14	
	죽장면 정자리	186, 산2-7, 산2-8, 산2-9, 산8-5, 산8-6, 산8-7, 산99-2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보상전문기관)
- 개장 사유 : 포항-관동1-1 국도건설공사(1공구)에 편입
- 공고 기간 :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 개장 방법 : ● 유연 분묘 : 연고자(관리자) 협의 후 합의 개장 처리
● 무연 분묘 : 공고 기간 이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 개장 후 안치 장소 : 재단법인영호공원(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1803-94)
-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 신 고 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성안오피스텔 1805호 (☎053-631-4778)
- 신고 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지번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아니하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부동산원장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후가
달라집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광고문의 (02) 799-6727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 신청 bravo.etoday.co.kr

‘상생금융’ 압박 속… 새 금융협회장, 당국과 가교役 ‘관건’

3대 금융협회장 인선 마무리

윤석열 정부 2년차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금융권 협회장들의 인선이 정해졌다. 금융권 ‘형님’ 격인 은행연합회장은 민간 출신인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선임돼 임기를 시작했으며 생명·손해보험협회장은 모두 관료 출신이 자리를 채웠다. 올해 초부터 계속된 윤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금융권 압박 속에서 금융협회장들의 가교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보협회 회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제2차 회의를 열고 55대 협회장에 이병래 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손보협회는 이날 20일 총회를 열고 이 후보를 차기 회장에 정식 선임할 예정이다. 1964년생인 이 후보자는 대전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2회에 합격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장, 금융위

손보협회장에 이병래 내정

FIU 원장 등 지낸 정통관료 출신

생보협회장에 김철주 선임

기재부·대통령실 등 두루 거쳐

민간출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업계 현장의 목소리 대변 예상

원회 금융정책과장, 대변인, 금융서비스국장에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을 지낸 정통관료 출신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을 역임한 데 이어 2020년부터 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 부회장을 맡아왔다.

이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에도 수차례 오를 정도로 금융권에서 굵직한 인물로 통한다. 화합형이고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품도 훌륭하고 여러 업무를 거친 적임자”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보협회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내정자

며 “특히 금융위 시절 보험과장을 거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보협회도 이날 관 출신인 김철주 신임 회장을 선임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생보협회 회추위는 제3차 회의를 열고 김철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36대 생보협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1963년 대구 출생인 김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행정고시 29회에 합격했다.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과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김 회장의 임기는 9일부터 2026년 12월 8일까지 3년이다.

이로써 보험업계 협회장은 모두 관 출신이 맡게 됐다. 업계는 당국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며 내심 관 출신 인사를 원해 왔다.

반면 은행연합회는 ‘격’ 이 다른 민간 출

신이 이끈다. 이달 1일 취임한 조용병 회장은 김광수 전 회장이 관 출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혀 다른 색깔로 연합회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로 은행연합회장은 관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맡아왔다. 은행업이 규제산업만큼 금융당국과의 소통에서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당국과의 소통이 원활할지는 몰라도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장 경험은 없으나 업계의 요청을 받아주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은행 관계자는 “역대 은행연합회장 중 유일한 4대 금융지주 회장 출신으로 과거 회장들에 비해 무게감에서 차이가 있다”라며 “당국이 정책을 펼치기에 앞서 업계의 현황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누구보다 은행권 현장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를 적극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지연 기자 sjy@



‘애플페이’ 국내 확산 지지부진한데

애플 공략 시작되자… 카드사 ‘눈치보기’ 돌입

애플페이 확산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애플의 국내 시장 공략이 시작되자 카드사들이 ‘눈치보기’에 돌입했다. 카드사들은 애플페이가 도입에 따른 실적 검토와 함께 애플과의 계약 조건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내달 경기 하남시 스타필드에 한국의 여섯 번째 애플스토어를 개점한다. 조만간 일곱 번째 매장인 ‘애플 홍대’ 오픈도 예정돼 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아이폰에 대한 인기가 폭증하자 애플이 국내 시장 공략에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페이 결제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카드사들의 애플페이 참여도 본격화될 것이라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6월 신한·KB국민·BC카드 등은 애플에 애플페이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도 현대카드를 제외한 타 카드사와의 제휴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애플은

젊은 세대 아이폰 인기 폭증에 하남 스타필드 애플스토어 열어 카드사, 사업참여 의향서 제출 애플은 타카드사와 제휴 가능성 교통카드 기능 지연은 한계로

의향서를 제출한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애플페이 계약 조건을 전달했다. 이는 애플페이가 도입 이후 국내 파급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10월 국정감사에서 현대카드의 과도한 애플페이 수수료 논란이 제기되자 애플이 국내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타카드사들과의 제휴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애플페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교통카드 기능 탑재가 늦어지고 있어서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42%는 애플페이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길 원했다. 지난

10월 출시된 아이폰15에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내 교통카드 단말기 사업자인 티머니와 수수료 문제에서 합의를 못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과 카드사간 애플페이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지만 당장 사업에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단말기 보급 등 범용적인 부분의 한계와 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수수료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국 300만 가맹점 중 애플페이가 단말기는 10%에 불과하다”며 “결제 인프라 확보 추이를 살펴본 후 애플페이 도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베트남 등 카드사의 해외법인에서 우선적으로 애플페이를 도입해 애플페이 서비스를 경험해본 뒤 추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도 존재한다’며 “향후 애플페이 도입에 대한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말했다. 정성원 기자 jsw@

금리·수수료 ‘불공정 관행’ 없앤다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 설치

오늘부터 신고센터 운영… 과제 발굴 개선방안 신속 마련해 내년 1월 발표

금융감독원이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금리 수수료 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융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불공정 영업행태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공정 금융 추진위를 설치하고 위원회 지원 전담 조직(공정금융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공정 금융 추진위는 불공정 금융관행 등 주요 개선과제별 제도개선 방안 등 필요 조치를 심의하고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정 금융 추진위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과제 발

굴, 개선방안 마련·실행, 사후관리 3단계를 통해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금리·수수료 관련 부당하게 비용을 산정·전가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금융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금감원은 “금융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특정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영업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또 회사 편의적 보험금 부지급 결정, 부당한 채권추심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권익보다 계열사·대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공정 관행 과제 발굴을 위해 6일부터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 금융 추진위는 이달 중 1차 회의를 개최해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및 운영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리·수수료 등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내년 1월 중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범근 기자 nova@

케이뱅크 차기 은행장에 최우형 BNK금융 전무

디지털·IT 전문가… 임기 2년

케이뱅크 차기 은행장에 최우형(57·사진) 전 BNK금융지주 디지털·IT 부문장(전무)이 내정됐다.

케이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전 전무를 회장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1966년생인 최 후보자는 하나은행, 엑센츄어 컨설팅 이사, 삼성SDS 금융컨설팅·개발팀 상무, 한국IBM 상무 등을 거쳐 지난 2018년부터 약 5년간 BNK금융



그룹 디지털·IT 부문장(전무)을 지냈다. 최 후보자는 “케이뱅크 회장 최종 후보가 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케이뱅크를 만들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이달 말 열린 임시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케이뱅크 4대 은행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김범근 기자 nova@

동양생명 저우귀단 대표 사임… 차기대표 이문구 CMO

저우귀단 동양생명 대표이사가 사임했다. 차기 대표에는 이문구(사진) 최고마케팅책임자(CMO)가 내정됐다.

5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임시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문구 CMO를 신임 대표로 단독 추천했다. 이 내정자는 향후 이사회를 통해 선임될 예정이다.

저우귀단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임기는 내



장, 이사 등을 거쳤다. 서지연 기자 sjy@

년 2월 말까지다.

이신임대표 내정자는 1965년생으로 한양대 교육공학과를 졸업하고, 동양생명에 1992년 입사한 이후 사업단장, 제후전략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연금, 어디서 할까?”



퇴직연금



주택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모~~~든 연금 신한에 물어보세요

꿈꾸는 연금,
행복한 인생
신한은행

퇴직연금, 주택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까지 연금은 역시 신한은행

- 23년 11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 최초 업무협약 체결 · 퇴직연금 수익률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고객관리센터
- 연금 받을 때 더 많이 받으시라고 연금수령 IRP 계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 퇴직연금 중요 알림과 정보를 제공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카카오톡 전용채널
- 평생소득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 SOL 연금라운지 · 신한은행 연금고객님을 위한 필수 금융정보 52주 레터

- [신한 연금라운지] 신한은행 고객님을 위한 맞춤형 연금 상담 전용 공간
- 일산: 11월 22일 오픈 (031-812-3655, 주엽역 5번출구 신한은행 건물 4층)
 - 노원: 11월 27일 오픈 (02-6224-5499, 노원역 5번출구 신한은행 건물 3층)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개인형IRP의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중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의 기준과 면세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전용 상담센터 1833-3327(평일 9시~18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3-15354-1호(2023.11.17~2024.8.30)

‘내년 만기’ 홍콩 ELS… “지금 팔아야 하나” 투자자 고민

직장인 A 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단일 기초자산으로 한 주기연계증권(ELS)에 가입했다. 코로나가 극복되면 지수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기준가는 1만1734.33포인트. 상황 조건은 평가 당일 증가가 기준가의 102.5% 이상일 때다. 그동안 5차례의 조기상환 심사가 이뤄졌지만, 상황이 밀렸다. 지수가 기준가 위로 오른 적이 없는 탓이다. 만기상환인 내년 1월 원금의 절반을 날리게 생겼다. A 씨는 중도환매를 고민하고 있다. 중도 해지 수수료가 5~7% 가량으로 높은 편이지만, H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고, 무엇보다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다.

대규모 손실 위기에 처한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의 고민이 커졌다. 내년 상반기까지 홍콩H지수가 오르기를 기다려야 할지, 중도 해지 수수료를 물고라도 손절매를 해야 할지 섣불리 판단이 서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라면 심각하게 중도해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반면 하반기 만기 상품은 수수료 등을 따져보고 보유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다.

◇상반기 만기상품, 중도 환매 고민해

‘대규모 손실 위기’ 벗어나려면

상반기 만기 3兆~4兆 손실 전망

H지수 단기간 내 급등 어려워

손실 감내하고 중도환매 고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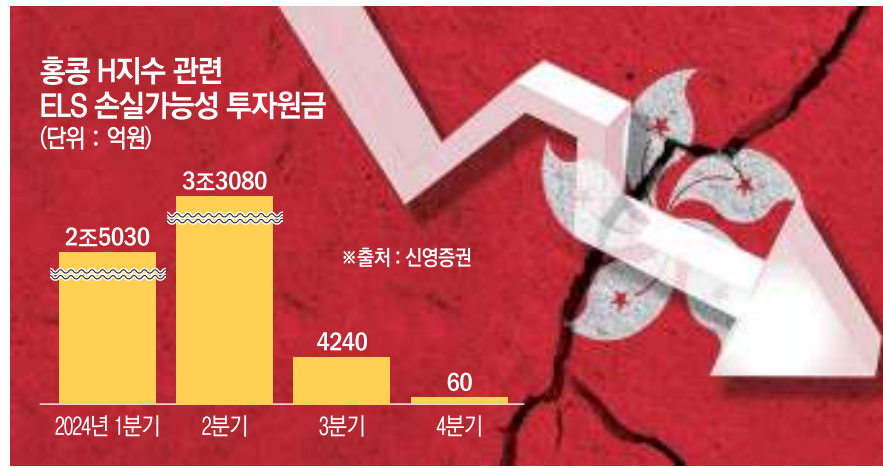
하반기 만기 ELS 상품은 ‘보유’

목표주가 지수 괴리를 최악 아냐

야 =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H지수 1개만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국내지수형 ELS(공모형)는 30개다. 이 가운데 내년 만기가 되는 종목 13개 중 5개가 녹인배리어(원금손실한계선)를 터지 했다. 모두 내년 상반기 만기 상품이다.

혼합형과 사모형 ELS까지 확장하면 위험구간에 노출된 상품은 더 많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H지수 ELS 총 발행잔액은 20조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은행 판매분 15조8000억 원 가운데, 8조3000억 원이 내년 상반기 만기를 앞두고 있다. 현재 H지수 감안시 3조~4조 원의 손실발생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내년 1분기 2조5030억 원, 2분기 3조3080억 원 등 상반기에만 5조800억 원 규모의 H지수 ELS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이 추산된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중 2020년 4분기까지 발행된 ELS는 대부분 조기상환됐지만, 2021년 1월부터 발행된 금액은 대부분 조기 상환에 실패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에 ELS 상품 만기가 도래한다면 시장 반등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손실을 확정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시점에서 단기간 내 시장이 급등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일반적인 ELS 수익구조가 3년을 만기로 하는 것을 고려하면 최근 3년 내 고점 대비 현재 H지수는 약 53% 하락한 상황이다. H지수 ELS 미상환잔액의 녹인레벨은 주로 50% 또는 65%다. 만기시점에 주가지수가 65% 이상일 경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H지수가 7949포인트

까지 상승해야 한다. 현재 H지수는 5600 포인트다. 한 두 달 사이에 약 40% 상승해야 한다는 얘기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3년 내 H지수의 최고점인 2021년 2월 17일을 기준으로 하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만기가 도래하는 2.5개월 이내에 H지수가 39.4% 상승해야 한다”며 “2000년 이후 H지수가 74일 기간 수익률이 39.4% 이상이었던 기간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인지 유안타증권은 “내년 1월부터 미상환 잔액 만기 상황에 들어가는 데, 홍콩 H가 8000포인트를 웃돌아야 대부분 수익 상황이 가능하다”며 “현재 홍콩 H지수의 흐름을 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H지수가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도 작

다. 중국 본토 증시와 달리 홍콩 증시는 미국 금리, 외국인 수급 등 대외적 변수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하반기 만기 상품, 아직 최악의 상황은 아냐 = 40대 후반 회사원 B 씨는 지난 2021년 8월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녹인’ ELS 상품에 5000만 원을 투자했다. 3년(만기) 뒤 세 지수가 65%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H지수가 5000선으로 무너지자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B 씨는 H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조기 상환 조건에 번번이 미달하면서 자금이 묶인 데다 만기에 ‘손실 폭탄’을 안게 될까 봐 걱정이 태산이다. 그가 거래은행 프라이빗뱅크(PB)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돌아온 답은 “하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H지수 ELS는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전문가들도 같은 얘기를 한다. 고점 대비 6개월 지난 2021년 8월 17일 종가 지수의 65% 수준은 5888포인트로 현 주가지수 수준과 유사하다.

현 주가와 12개월 후 H 목표주가 지수(블룸버그 컨센서스)와의 괴리를 측면에서도 ‘보유’가 답이다. 현재 괴리율은 45.5%이다. 과거 목표주가 지수 괴리율이 45% 이상일 때 1년 후 평균 수익률은 14.6%였다.

권태성 기자 tskwon@

“안전자산 金… 당분간 강세 지속”

“거대한 시장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재무부, 백악관을 이끄는 대표 삼인방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 등 헤지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아빠 가난한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2024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금의 광채가 돌아오고 있다”라며 금값 강세를 내다봤다.

불안한 중동 정세에 미국의 긴축이 곧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 달러 약세 등이 겹치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내년 2월 만기 금선 물가 가격은 장 중 2152.3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2.3% 내린 온스당 204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값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건 미국의 긴축 종료 기대감이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에 다시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통상 금 투자에선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져 채권의 이자가 줄면 금의 매력은 높아진다.

경기에 대한 우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실물자산으로 시가나 장소와 관계없이 가치를 가지는 금은 경제위기 때

美 긴축종료 기대감에 매력 부각
과거 양적완화 나서자 가격 올라
온스당 목표가 2500~3000弗

다 값을 높여왔다.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머지않아 금리를 낮출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도 금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시중에 다시 유동성이 풀리면 다시 물가를 자극해 주요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만, 실물인 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로 높아진다.

시장에서는 금값이 내년 말까지 온스당 30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마켓게이지는 야후파이낸스 인터뷰에서 온스당 3000달러를 목표가로 제시했고, 마크 뉴턴 펀드스트래트 기술 분석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기술적 요소를 거론하며 금값이 온스당 2500달러를 넘길 것으로 봤다.

개미(개인투자자)는 금값 상승에 베팅해도 될지 고민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책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끌어내리고 양적완화에 나선 이후 온스당 800달러대였던 금값은 2011년에 1800달러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기 침체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 부채 확대 우려, 미·중 갈등 지속 속에 중국의 미국채 매도와 달러 매수 현상 지속 등도 금 가격 강세를 지지할 공산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 가격 상승은 온스당 2150달러까지 열릴 수 있다”며 “특히 내년 경기 방향성을 두고 갑론을박인 상황에서 금의 안전자산 수요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민규 기자 pmk8989@



정영채(뒷줄 왼쪽 다섯 번째)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4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2023 빅데이터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최종 수상팀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NH투자증권 ‘빅데이터 경진대회’ 시상식

NH투자증권은 2023 빅데이터 경진대회 ‘블룸버그, 나스닥과 함께 세계속으로!’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네 번째 빅데이터 경진대회로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해외주식 투자기회 찾기’를 주제로 고객들의 해외 시장 투자 경

험 확산을 위해 투자인사이트 제공이나 콘텐트 아이디어 수집을 목표로 진행했다. NH투자증권은 블룸버그와 미국 거래소 나스닥과 스폰서십을 맺고 참가자들에게 해외 기업과 해외 시장 특화 데이터를 제공해 폭넓은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데이터 속 해외주식 투자기회 찾기 주제
서강·홍익·건국대 ‘뉴욕 가즈약’ 팀 대상

서강·홍익·건국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뉴욕 가즈약’ 팀이 고객에 필요한 뉴스토픽을 요약하고 주가 트렌드를 분석하는 리포트 서비스로 대상을 받았으며, 이들에게는 뉴욕 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권태성 기자 tskwon@

코스피 대형주 상승률, 소형주 눌렀다

11월 이후 대형주 지수 9.35% ↑
소형주 5.15%… 투자자 ‘온도차’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를 담았던 투자자들이 미소를 짓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이후 이날까지 코스피 대형주 지수는 2473.75로 시작일 기준가(2262.21)보다 9.35% 올랐다. 반면 코스피 소형주는 같은 기간 2144.78에서 2255.22으로 올라 5.15%의 상승률을 그쳤다.

코스피 대형주 지수는 코스피 시장 상장종목 가운데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100개 종목으로 산출되며, 소형주 지수는 시총 301위부터 그 이하 종목을 포괄한다.

이 같은 결과는 외국인의 시가총액 순위가 높은 대형 반도체주 매수세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초부터 이달 5일까지 삼성전자를 2조356억 원 순매수했다.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5935억 원 사들였다. 코스피 시장 전체에서 외국인이 3조614억 원을 순매수한 것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수급이 반도체 섹터에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

증권가에서도 올해 말을 기점으로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당분간 반도체 업종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한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수상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실적 상향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며 “반도체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반도체 수출은 정상화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박상민 기자 si2020@

‘K뷰티 열풍’에… 한국콜마·코스맥스 ‘2조 클럽’ 보인다

에프앤가이드, 연간 매출 추정

국내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제조자개발방식) 양대 산맥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2조 클럽’ 입성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해 1~3분기에 양사는 나란히 실적 상승 곡선을 그린 터라, 4분기에도 호실적을 유지해 사상 최대 연간 매출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국콜마의 올해 연간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2조1552억 원으로 추정된다. 코스맥스의 연간 기준 매출은 2조 원에 살짝 못 미치는 1조83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콜마 2조1552억… 15.5% 증가
코스맥스 1조8400억… 15% ↑
각사 해외매출 전년보다 ‘썩춤’

국콜마가 올해 2조 원을 달성하면, 2018년 매출 1조 원 클럽에 가입한 지 5년 만에 매출 2조 원 시대를 열게 된다.

한국콜마는 올 들어 중소 인디 브랜드 수요가 급증하며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2분기엔 중소형 브랜드 수주 확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하며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1~3분기 누적 매출액은 1조60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988억 원을 기록했다. 4분기도 장맛비 호실적이 유력하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5514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57% 증가한 393억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해외 매출은 북미 시장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39% 증가한 69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억 원으로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코스맥스도 올 들어 매출이 급성장세다. 코스맥스의 1~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1조3409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84% 늘어난 931억 원을 기록했다. 미국 법인의 손실을 축소한 데다, 코스맥스 또한 국내 인디 브랜드의 일본향 수출 물량이 늘어난 덕

을 봤다. 4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 24.6% 증가한 4989억 원, 영업이익은 1554% 증가한 39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12.1% 늘어난 2239억 원을,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오지우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리오프닝에 따른 내수 시장 호조와 일본, 중국, 미국향 간접 수출 매출의 견고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러한 기조는 내년까지 지속돼, 양사는 두 자릿수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사는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콜마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케어를 포함한 색조 화장품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글로벌 화장품 시장 진출에 속도

를 낸다는 방침이다. 올해 미국 뉴저지주 문을 연 ‘북미기술영업센터’를 전지가지로 삼아 본격적으로 북미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한국콜마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중동, 유럽시장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코스맥스는 동남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K뷰티 인기 추세를 반영한 메이크업 제형 라인업 확대와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로 새로운 카테고리를 구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한해는 K뷰티가 글로벌 화장품 시장을 리딩하는 주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해였다”며 “OEM·ODM 사는 내년에도 그간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적극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롯데쇼핑 부산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 특징

연면적	상품	배송처리량
약 4만2000㎡	4만5000여 종	하루 3만 여건

-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수요 예측, 재고 관리
- 상품 피킹·패킹 등 전 과정 자동화
- 상품 보관 시설인 바둑판 모양 격자형 레일 설비 ‘하이브’ 구축
- 1000대 이상의 로봇이 하이브를 초속 4m 이동, 피킹·패킹 담당
- 전기차 배송, 옥상에 태양광 설비 설치해 연간 약 2000MWh 전력 생산

※출처 : 롯데쇼핑

“로봇이 포장·출고 ‘척척’ … 최첨단 물류기지 될 것”

롯데쇼핑, 부산 CFC 착공

기존비 상품 2배 늘어난 4.5만개
하루 3만건… 적시 배송률 98%

롯데쇼핑이 영국 리테일테크 기업 오카도와 손잡은 지 1년 만에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국내 1호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 이하 부산 CFC)를 착공했다. 오카도 스마트플랫폼(OSP)이 적용된 만큼 상품 누락·변질, 오·지연 배송 등 그간 신선식품 온라인 쇼핑 불편함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2000억 원을 투자, 2025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부산 CFC는 4만5000여 종의 상품과 하루 3만여 건의 배송을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롯데쇼핑의 온라인 물류센터 대비 각각 2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곳엔 오카도의 핵심 통합 솔루션인

OSP(Ocado Smart Platform)가 적용됐다.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수요 예측 및 재고 관리, 자동화 물류센터 구축, 효율적인 배송·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OSP의 특징인데 오카도의 식품 폐기율은 0.4% 수준이다. 이는 국내 대형마트(3%), 슈퍼(4%)보다 현저히 낮다. 오카도는 자신들의 물류 혁신 기술을 부산 CFC에 녹였다. 연면적 약 4만2000㎡ 규모의 물류센터 내에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바둑판 모양의 격자형 레일 설비인 하이브(hive)와 피킹·패킹을 담당하는 로봇인 봇(bot)도 그대로 적용했다.

1000대 이상의 봇들이 최대 4만5000개의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하이브의 위를 초속 4m의 속도로 움직이며 상품을 집고 포장한다. 봇은 서버와 초당 10회 통신하며 최적화된 경로로 이동한다. 고객 주문 후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오카도의 적시 배송률은 98% 수준이다.

롯데쇼핑의 부산 CFC는 AI 기반 수요 예측, 재고관리를 비롯해 상품 피킹·패킹 등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매일 최대 33번의 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온라인 장보기 과정에서 겪어왔던 상품 변질, 품질, 누락, 오배송, 지연 배송 등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쇼핑 편의성을 높일겠다는 게 롯데쇼핑의 계산이다.

한국 도심에 맞는 배송 체계도 확립한다. 냉장·냉동식품 구매 성향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저온 환경의 상품 보관 체계를 확대하고, 아파트가 많고 교통이 혼잡한 도심 환경을 고려해 국내 배송 차량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프레임과 배송 박스를 별도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산 CFC 건물 옥상 주차장에 연간 약 2000MWh(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조성, 부산 CFC에서 배송되는 전 상품을 전기 차량으로 배송한다.

유승호 기자 peter@

외식 물가 상승에 밀키트·HMR 웃었다

〈가정간편식〉

음식점·주점 소매판매액지수 6% ↓
이마트 피코크·GS 등 매출 성장

경기 불황과 고물가로 인해 외식 소비가 줄어들면서 밀키트(Meal Kit)·가정 간편식(HMR) 등 집밥을 대체할 식품류 판매가 조용히 늘고 있다. 내년에도 경기 둔화가 예상돼 이들 제품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음식점·주점업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113.7로 전년 동기보다 6% 감소했다. 올해 외식 물가가 치솟으면서 음식점·주점업 소매판매액지수는 2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도 올해 내내 내림세다. 올해 1분기 86.91에서 2분기 83.26, 3분기에는 79.42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 지수는 기준점 100을 초과하면 성장, 100 미만은 위축을 의미한다. 반면 집밥 수요는 외식보다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7~9월 가계 월평균 식료품 지출액은 45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만5000원 증가했다. 이 기간 외식은 41만9000원으로 1만3000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는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가 2021년 2587억 원에서 지난해 3400억 원으로 성장했고, 올해는

43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지속성장세라고 본다. 올해 유통업체들의 간편식 판매량을 봐도 매출이 크게 늘었다. GS샵은 올해 1~11월 TV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모바일 앱의 판매 상품 데이터를 종합분석한 결과 여행·뷰티·패션과 함께 집밥 관련 상품 구매가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갈비탕, 스테이크, 팔보채 등 HMR은 15%, 포장김치는 30% 각각 매출이 늘었다.

이마트의 경우 자체브랜드 피코크(PB)의 1만 원 미만 밀키트 4종이 10월 첫 출시 이후 한 달간 약 1만2000개 팔리며 인기를 끌었다. 또 밀키트, 냉장·냉동 간편식 1000여 종을 판매하는 홈플러스의 특화매장 ‘다잉 스트리트’의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15% 이상 성장했다. 편의점 이마트24도 올 상반기 밀키트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585%나 늘었다고 밝혔다.

밀키트·HMR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사들도 제품군을 다양화해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신세계 유통 3사와 밀키트 공동기획 신제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밀키트 1위 업체 프레시지도 연말 홈파티족을 겨냥한 제품을 최근 출시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간편식 매출이 크게 성장한 탓에 기저효과는 있지만, 관련 제품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 kjj42@



갤러리아백화점, 20억 목걸이 판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명품관에서 프랑스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프레드’의 하이주얼리를 국내 단독으로 선보였다. 무수프레드 이너 라이트와 포스텐 등 주요 컬렉션 상품 4개, 총 56억 원 상당에 달하는 제품을 5일부터 전시·판매한다. ‘솔레이 도르 래디언트 에너지’ 목걸이는 11.25캐럿의 래디언트컷(직사각형 모양의 가공 방식) 옐로우 다이아몬드가 장식됐다. 화이트·옐로우 다이아몬드를 조합해 바다 너머 노을이 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가격은 20억 원이다. 사진제공 한화갤러리아

CJ ENM 브랜드웍스, 美 국민 신발 ‘락포트’ 사업권 획득

커머스 자회사… 리브랜딩 단행
“오프라인 고도화·밸류체인 성장”

CJ ENM 커머스부문의 자회사 브랜드웍스 코리아(이하 브랜드웍스)는 이달 초 미국 컴포트 슈즈 브랜드 ‘락포트(ROCKPORT)’의 국내 사업 운영권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락포트 인수를 기점으로 오프라인 밸류체인 역량을 고도화해 오펜세, 브룩스브라더스 등 보유 브랜드 육성을 가속화한

다. 락포트는 1971년 미국에서 설립된 대표적인 컴포트와 브랜드다.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아 백화점·프리미엄 아울렛 등 110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브랜드웍스는 이달부터 락포트 운영을 시작함과 동시에 리브랜딩을 단행한다. 먼저 기능성 슈즈 라인을 고도화해 실용적인 제화 브랜드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한다.

올해 1월 출범한 브랜드웍스는 패션·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 중심 신규 브랜드 론칭, 카테고리 다각화, 온·오프라인 채

널 믹스 등 유통 채널 다변화 등의 전략을 꾀했다.

특히 오펜세와 브룩스브라더스는 브랜드웍스 코리아에 흡수된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취급고가 40% 이상 성장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CJ ENM 관계자는 “110여개가 넘는 점포를 보유한 락포트를 통해 오프라인 운영 역량을 고도화하고 이를 내재화해, 브랜드웍스 보유 브랜드의 전체 밸류체인 성장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검토”… 사법농단엔 “송구”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압색 영장 들어오면 100% 발부
청구 이유 알아보는 제도 필요
조 “검사 신청하는 참고인 소환”
여야, 사법부 중립·독립성 당부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도 도입 관련 질의에 “최근에 압수수색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전 심문을 위해) 아무나 부르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이나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기준 안에서 후퇴해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2월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변경해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했지만,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 실제적 발견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논란이 이어져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거의 100% 다 발부해준다. 검사에게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근무할 때 압수수색과 관련해 참여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거나 압수된 자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획기적인 판결을 냈다”며 “여전히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주문을 이어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교수 사건은 3년 1개월 만에 1심이 선고됐고, 2년 선고를 받았다”며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법정 구속이 안 됐다”고 주

장했다.

같은당 김형동 의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민주당을 탈당한 최강욱·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 지연 문제를 언급한 뒤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법부 독립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며 “일반론으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판이 지연되는 안 된다”고 말을 아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며 “사법농단의 원인이나 결과 등은 1심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전임 대법원장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다.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는 앞서 나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와 달리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청문위원들도 조 후보자의 인품을 높게 평가하는가 하면, 임명을 전제로 한 듯 향후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 등을 당부했다.

김도읍 인사청문위원장은 청문회 직전 “원활하게 청문회가 진행돼 대법원장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됐는데, 민주당은 이 책임을 물어 김 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김이현 기자 spes@

코 성형 뒤 후각 상실… 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콧속에서 제거 안된 거즈 발견
타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 안해
의사 손해 소송… 원고도 책임

코 높이 성형수술을 받다 후각을 상실한 환자에 대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3%로 제한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능력 상실률이란 장애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법원의 감정인인 의사가 해당 장애에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를 말한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장애 등급이 높을수록 노동능력 상실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손해배상금을 많이 산정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

형수술을 받다 후유증이 생긴 환자 A 씨가 성형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3%로 책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원고 A 씨는 2016년 7월 한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쌍꺼풀 수술, 다투임, 용비술(코 높이), 입술 축소술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코의 통증과 호흡곤란이 계속된 A 씨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 콧속에서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돼 제거했다. A 씨는 무후각증 상태가 계속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적용해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5%로 산

정했다. 이에 A 씨가 청구한 금액 8047만 원 가운데 4628만 원을 인정,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노동능력 상실률보다 낮은 3%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비인후과 진료 과정에서 콧속에서 거즈를 제거한 후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권유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2심은 “적절한 시기에 염증치료를 받지 못해 무후각증이 악화되는 등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대학들 “일괄적 ‘무전공 선발’ 안돼 인기학과 쏠림 심화… 여건 살펴야”

교육부 ‘학과간 벽 허물기’에
대학 “기초학문 붕괴… 자율로”

교육부가 내년부터 대학 신입생의 최대 30%를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인센티브 카드까지 꺼낸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무전공 선발을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요구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학의 여건에 따라 무전공 선발이 콩나물강의실을 늘리는 등 인기학과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5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학과 간 벽 허물기’ 등 무전공 선발 방안에 대해 묻는 ‘일반재정지원 성과평가 포괄리 개선방안 연구 설문조사’와 관련,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자”는 내용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본지 12월 5일자 19면 보도)

교육부는 ‘학과 간 벽 허물기’ 평가의 연장선에서 내년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는 설문을 통해 “해당 정책 방향은 이후 일반재정지원 사업에도 지속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수도권과 국립대 평가 때 모집단계 추진 실적을 정량평가인, 양적 규모로 중점 반영하고자 계획 중이라 했다. 보건 의료·사범 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을 무전공(자율전공)으로 모집하는 대학 등 ‘학과 간 벽 허물기’ 실적이 많은 대학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대학들은 규모 등 여건을 살피지 않고 무전공 선발 추진 실적을 정량 평가하는 것은 기초학문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대학의 A 기획처장은 “무전공 선발로 전공선택 자율권을 넓히고 다양한 학문을 연계한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취지는 좋다”면서도 “고등교육은 전문성 확보도 필수인데, 무전공 선발로 취업 중심의 인기학과나 정부 정책에 따른 학과 증설에 매몰될 우려도 높다”고 했다.

대학들은 대학의 규모도 무전공 선발을 늘리는데 있어 살펴봐야 할 요소라고 꼽았다.

지역대학의 B 기획처장은 “재학생이 많은 대학과 재학생이 적은 대학, 단과대학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을 비교할 경우, 비전공 도입은 재학생과 단과대가 적은 소규모 대학에 훨씬 부담이 적다”고 했다.

대학들은 하드웨어적으로도 대학 내부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도 지적한다.

지역 대학의 C 관계자는 “예컨대 40~60명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이 있다고 하면, 무전공 추진을 했을 때 120명이 되면 이를 한 강의실에 어떻게 집어넣느냐는 문제가 생긴다”며 “정말 강의실 벽을 허물 수밖에 없는 하드웨어적인 고민도 발생한다”고 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한국 학생 학업성취도 OECD 중 유일하게 올랐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학생들의 평균 학업성취도가 수학·읽기·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떨어졌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유일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 결과를 발표했다.

PISA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의 성취와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성취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제 비교연구다. 우리나라는 첫 시행 연도였던 PISA 2000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

코로나 기간 온라인 수업 효과
수학·읽기·과학 등 ‘최상위권’

육부 관계자는 “2021년 예정되었던 본 검사 시행이 코로나19로 인해 한 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PISA 2022에는 OECD 회원국 37개국과 비회원국 44개국 등 총 81개국에서 약 69만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186개교에서 6931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모든 영역에서 OECD보다 평균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중 수학 1~2위, 읽기 1~7위, 과학 2~5위로 높은 성취를 나타냈으며, 전체 81개국 중에서도

수학 3~7위, 읽기 2~12위, 과학 2~9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PISA 2018 대비 올해 OECD 회원국 평균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하락했는데, 우리나라는 올랐다. 구체적으로 OECD 평균 점수는 수학이 472점으로 4년전(489점)보다 떨어진 것을 비롯해 읽기(487점 → 476점)와 과학(489점 → 485점)도 하락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평균 점수는 각각 527점, 515점, 528점으로 4년전(526점, 514점, 519점)보다 올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에 교육당국이 온라인 수업 등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휴대용 SOS 비상벨·안심 경보기〉

위급상황서 ‘배~익’ 경보음… 서울시 ‘지킴이’ 1만개 보급

비상벨 울리고 3분만에 **경찰 도착**
경보기 120dB 소리 **사방으로**
경찰과 **협력** 이상동기 **범죄예방**
이달 말 서울 경찰서에서 **지급**

잇단 흉악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안전한 일상 지원에 나섰다.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로 구성된 안심세트 '자키미(ME)'를 보급, 위급 상황에서 원스톱 지원 체계가 작동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5일 오전 10시 16분. 오세훈 서울시장
이 서울시장 옆 광장에서 얇은 립스틱 도
양의 '휴대용 SOS 비상벨'에 달린 고리
를 뽑자 '뿔~' 소리가 울렸다. 동시에 미
리 저장해 둔 5명의 지인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는 문자가 즉각 전달됐다. 20초 후
112로 신고가 접수되면서 지구대·파출소
상황실에도 위급상황이 전해졌다. 3분



오세훈 서울시장의 5일 오전 서울시장 앞에서 안심세트 '지키미(ME)'를 시연하고 있다.

30초 지난 19분경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이동하는 동안 오 시장은 '서울 마이소울'이 새겨진 삼각형 모양의 '한심 경보기'를 눌렀다. 소음 수준 120데시벨(dB)의 '뽀~' 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 통상 120dB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서 축구 경기 응원 도구로 사용되는 나팔 모양의 악기, 부부젤라가 내는 소음 수준에 해당한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에게 위급상황을 알려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동시에 범인을 당황하게 만드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였다.

서울시는 '위급상황에서 나를 지켜주

는 지키미, ME' 세트 1만 개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흥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이상동기 범죄'로 시민의 일상이 위협받자, 호신 물품 지급 검토에 나선 결과다.

시에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에서 김광호서울경찰청장과 안심세트 지킴이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가 안심 물품을 지원하고, 경찰청은 이를 적극 보급하면서 안전한 서울 조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청과 정보교류 등 협력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나가고자 한다”며 “위험에 처했을 때 강력한 경보음이 울려 주면 시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경찰청 통보 후 바로 출동이 가능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만 세트로 시범 적용해 보고 더 업그레이드 해서 빠른 시일 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보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분들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잦

은 상황에서 시장님이 획기적인 제안을 해주셨다”며 “고위험군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에 있어 또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반응 시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 휴대용 SOS 비상벨에 달린 고리를 뽑은 후 112 신고 접수까지 20초가 걸리는 이유에 대해 조재광 서울시 자치경찰협력과장은 “오작동에 따른 경찰 인력 출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고가 됐을 경우를 거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인데,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시간이 다소 길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심세트 지킴이(ME)는 이달 말부터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가 우선 지급 대상이다. 112신고 및 사건 접수된 범죄 피해자는 상담·조사 시 희망 여부를 파악한 후 지원된다.

김서영 기자 0jung2@

용인·시흥·양평 ‘깨끗한 경기 만들기’ 최우수

생활폐기물 감축 등 14개 평가

경기도가 실시한 ‘2023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용인시와 시흥시, 양평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5일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뉘,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우수사례 정성 부문 발표회 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14개 지표를 평가에 대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용인시가 최우수, 수
원시가 우수, 평택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인구수 11~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시흥시가 최우수, 파주시가 우수, 광주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양평군(최우수상)과 이천시(우수상), 의왕시(장려상)가 수상했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용인시, 시흥시, 양평군에는 각 1억5000만 원의 사업비가 교부된다. 우수상을 받은 시군은 각각 1억 원의 사업비를 받는다. 장려상은 지난 4개년(2019~2022년) 평가 대비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된 시군으로 선정해 각각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는다.

도는 올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제고,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강화, 주민참여 확대 등을 중점적인 평가항목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서서는 커피박스 수거·재활용 체계 구축, 폐합성수지 원료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 재활용 선순환 체계 확립 등 시군별 특색있는 시책이 공유됐다.

정량평가항목에서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선별·처리 체계가 19개 시군에 구축된 것을 확인했다.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점검 1만9000개소, 무단투기 단속 2만4000건, 불법투기 폐기물 2만3000건을 신속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김재학 기자 jo801005@

관악구 '고독사 예방' 우수사례 선정

고위험군 안부확인 인력 보강

가족해체와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악구가 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관악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고
독사 예방·관리 정책기반 구축 분야' 최우
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1월 ‘관악 생명사랑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고독사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또한 △고독사 예방 민간 협의체 구성 △고위험군 집중모니터링 △고위험군안 부확인 전담인력 보강 △안부확인고식사 지원을 결합한 ‘행복한 한 끼 나눔’ △고립, 은둔가구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했다. 지난 11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인식 교육’을 실시, 직원들의 고독사 현장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와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으로 많은 주민이 향상된 복지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린이들의 내일을 담는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 53호 흥천시동 하나어린이집 (23년 9월말 기준 78개소 건립완료)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법률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중개 플랫폼 ‘나의 변호사’ 개편
소비자가 필요한 변호사 선택
수수료 0원...앱 자체 수익 없어
“공공성 확보...정부 지원 필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 변호사 중개 플랫폼 ‘나의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개편·강화에 나선 가운데 김영훈 변협회장이 “사실 플랫폼과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원 변호사들의) 사실 플랫폼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지난 집행부의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는 해왔지만, 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시대적 흐름도 제시해 왔다”면서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개발해 경쟁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개편·강화된 ‘나의 변호사’ 앱 시연에 따르면 소비자는 ‘이혼’, ‘상속’, ‘민형사’ 등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해 적절한 경력의 변호사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가 제시한 2~50만 원 사이의 상담 비용을 확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 대한변협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변협

인한 뒤 직접 결제하고 채팅, 전화, 영상, 방문 등 4가지 상담 방식을 신청하는 절차다. 올해 3월 정식 출시한 ‘나의 변호사’를 두고 ‘소비자가 필요한 변호사를 직접 선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만큼 관련 편의를 대폭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이날 ‘나의 변호사’가 사실 플랫폼 대비 높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플랫폼의 경우 한 달에 100건 이상, 1년 반 동안 1800건 이상 수입한 분들이 4~5명 정도 된다”면서 “알고리즘 조작으로 특정 변

호사를 앞쪽에 배치하는 게 아닌 이상 불가능한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1~2년 검사 경력으로 ‘수석 검사’라고 표시해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나의 변호사’에서는 허위 정보가 전부 차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 측에 따르면 ‘나의 변호사’에는 현재 7700여 명의 변호사 프로필이 공개돼 있다. 상담 서비스 신청 누적 인원은 1050여 명이다. 다만 소비자화 회원 변호사 양쪽 모두에게 수수료를 전혀 취하지 않는 만큼, 사실상 수익구조가 없는 상황

이다.

김 회장은 이날 “앱 자체로 수익을 내면 사실 플랫폼으로 변질된다”면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이어 “여당은 경쟁 체제에 돌입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앱이 활성화되면 적어도 연간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만큼 100억 원이 조금 넘는 변협 예산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어 지원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에 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수사 전문가가 공수처장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추천도 그렇게 했다”면서도 “꼭 그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시각을 가진 위원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여야 의원 4명,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과 후보자를 추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위원들 간에 시작차는 있지만 어쨌든 공수처가 유지되고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돼 있다”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한 방향으로 (결과가)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꽃 기자 pgot@

최우석 과기정통부 다자협력담당관
OECD 디지털경제총무 부의장 선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최우석(사진) 다자협력담당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5일 밝혔다. CDEP는 4~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92차 정례회의를 열고 최담당관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CDEP는 차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발전 동향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회원국 간 정책 권고와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공동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의장단은 정례회의와 의장단회의를 통해 위원회 논의 전반을 주도하는데 내년 의장단은 한국(부의장)을 비롯해 일본(의장), 영국, 캐나다, 스페인, 멕시코(이상 의장 1개국, 부의장 5개국)로 구성됐다.

최 담당관은 과기정통부에서 AI확산팀장 등을 역임하며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한국 개최를 담당하는 등 다양한 양·다자 국제협력 경력을 지녔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보령의사수필문학상 대상 신제일병원 박관석 원장

보령이 제19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에서 박관석(사진) 신제일병원 원장의 작품 ‘문득 그 향기가 그리운 날엔’이 대상에 선정됐고 5일 밝혔다.

제19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공모작을 모집했다. 한국수필문학진흥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금상 1편, 은상 2편, 동상 5편 등 총 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금메달이 수여되며, 수필 전문잡지인 ‘에세이문학’을 통해 수필 작가로 등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상에는 △첩첩한 맘(누가 광명의원 조석현), 은상에는 △서른살에 죽다(중앙병원정경사소이진환) △폭죽 할매(양산병원 주세한), 동상에는 △남한 사람(경북대학교병원 장성만) △저녁노을(포항여성병원 배철성) △경계를 넘어(국립중앙의료원 조지현) △씨니와 쉰(서울의원 김철환) △그냥 계속 탕고를 추어요(남양주백병원 김용래)가 선정됐다.

노상우 기자 nswreal@



하나금융, 이웃돕기 성금 150억



하나금융은 연말을 맞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을 통한 사회공동체와의 상생을 위해 이웃사랑 성금 15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함영주(사진 왼쪽) 하나금융 회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관에서 진행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전달식에서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사회구성원을 위해 성금 150억 원을 전달했다. 150억 원의 성금은 그룹의 15개 관계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나눔 실천을 위해 마련했다. 그룹이 올해까지 누적으로 전달한 성금 총액은 985억 원으로 이번 전달식에서 ‘900억 클럽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 사진제공 하나금융

“이동약자 이동권 개선”...현대차, 12억 상당 모빌리티 지원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 지원을 통해 이동약자들의 이동권 개선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5일 경기 용인 기아비전스퀘어에서 한용빈 현대차그룹 부사장,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정진완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약자 모빌리티 지원사업 전달식’〈사진〉을 열었다.

이동약자 모빌리티 지원사업은 현대차그룹이 이동약자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2011년부터 진행해온 사회공헌 활동이



다. 현대차그룹은 복지차량, 장애인용 자전거, 노인용 전동스쿠터, 근력 보조기 등 다양한 모빌리티 기기를 기증해왔다. 올해까지 총 누적 기증 규모는 약 79억 원에 달한다.

JYP 박진영, 삼성서울병원 등 5곳에 소아청소년 치료비 10억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4일, 가수 겸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사진 왼쪽〉씨가 사재 출연으로 기부한 10억 원 중 저소득층 소아청소년 치료를 위한 기부금 2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5일 밝혔다.

박 프로듀서는 국내외 환자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 각각 2억원씩 총 10억원을 기부했다. 삼성서울병원에 전달된 기부금은 국내 만 24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환자의 수술, 이식 및 재활 등 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한성주 기자 hsj@ · 사진제공 삼성서울병원

올해 지원 품목은 레이 복지차량 24대, 카니발 복지차량 6대, 전동보장구 105대(전동휠체어 49대, 전동스쿠터 56대)로 약 12억 원 규모다. 레이 복지차량과 카니발 복지차량은 현대차그룹이 육성한 사회적 기업 이지무브에서 개발했으며 휠체어 탑승자에게 최적화된 설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그룹은 해당 품목들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나누어 기증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인사

- ◆삼성생명 ◇부사장 승진 △이주경 ◇상무 승진 △김규현 △김석호 △김용권 △모정혜 △우무철 △이동훈 △정명훈 △허정식
- ◆삼성화재 ◇부사장 승진 △김일평 ◇상무 승진 △권영집 △김상현 △김현중 △양덕현 △이윤재 △장병조 △조은영
- ◆삼성카드 ◇부사장 승진 △황성원 ◇상무 승진 △김성환 △김윤석 △이은복 △이창우 △황성식
- ◆삼성증권 ◇부사장 승진 △이충훈 ◇상무 승진 △박재호 △정영규 △홍상영
- ◆삼성자산운용 ◇부사장 승진 △최창희 ◇상무 승진 △신재광
- ◆삼성글로벌리처 ◇부사장 승진 △김창모 △김태진 △민병석 ◇상무 승진 △조성제

- △허준
- ◆호텔신라 ◇상무 승진 △김용균 △김태훈 △서일호
- ◆제일기획 ◇부사장 승진 △서지영 △정 의선 ◇상무 승진 △박준석 △원정림
- ◆에스원 ◇부사장 승진 △진길수 ◇상무 승진 △박태훈 △안재민
- ◆SK증권 ◇부사장 승진 △오민영 법인사업부 대표 ◇상무 승진 △구지원 비서실장 △서영수 기획재무본부장 △이종호 ECM본부장 △전동한 채권영업본부장 △정승구 신탁본부장 ◇상무 승진 △구민경 구서지점장 △나영철 IT본부장 △신수영 홍보실장 겸 이사회사무국 부국장 △이대현 인사팀장 △조광희 리테일본부장 ◇이사대우 선임 △권순영 채널시스템팀장 △김승기 파생상품팀장 △김홍일 펀드채권팀장 △문상보 삼천포지점장 △박병욱 내부통제관리

- 팀장 △서영일 리테일사업팀장 △최석열 경영시스템팀장 △보임 변경 △이사회사무국장 겸 비서실장 구지원 상무 △MultiAsset 운용본부장 박진남 상무 △기업금융2본부장 이종호 상무 △상품본부장 정승구 상무 △3지역본부장 강성호 상무 △1지역본부장 유성호 상무 △구조화본부장 윤보현 상무 △기업문화실장 이대현 상무 △금융소비자보호실장 문정민 이사대우 △스마트금융센터장 송기자 이사대우
- ◆한국엔컴퍼니 그룹 [한국엔컴퍼니] ◇상무 승진 △미래전략팀 고보미 △ES사업본부 테네시공장 박동명 ◇상무 승진 △ES사업본부 연구개발부문 우재훈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부회장 승진 △CEO 이수일 ◇부사장 승진 △품질본부장 김학주 △중국본부장 김현철 ◇전무 승진 △SCM부문장 김선중 △구매부문장 박현민 △아태부문장 정용섭 ◇상무

- 승진 △중국본부 가흥공장장 강승현 △모터스포츠&컬처담당 김영수 △중동아주부문 김종우 △G.OE혁신본부 KAMEurope 류재석 △구주본부 헝가리공장 제조담당 임호택 △인도네시아공장장 장두영 ◇상무보 승진 △경영관리1팀장 강지만 △브랜드전략팀장 김정곤 △중국본부 경영관리팀장 서익환 △금산공장 제조담당 송영진 △디자인이노베이션스튜디오 팀장 윤성희 △SHE담당 이종하 △제조기술운영팀장 이진영 △오스트리아법인장 장수원 △G.판매전략팀장 정상수 △TB개발담당 천운창 △경영진단2팀장 최재권 △대전공장 제조담당 황금강 △ATC담당 제이 안 △NA본부 PC/LT 영업담당 커크 옌센 △구주본부 스페인법인장 아이작 오르테가 [한국네트웍스] ◇상무보 승진 △물류사업담당 노종진
- ◆명지병원 △의무부원장 김인병

부음

- ▲최정숙 씨 별세, 주기만(전 현대엔지니어링 전무) 씨 부인상, 주상용(법무법인 평안대 표변호사)·최진 씨 모친상, 홍희정(KBS 국제부 기자) 씨 시모상, 임승건(신구대 물리치료학과 교수) 씨 장모상 = 4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7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40
- ▲최용득(전 전북 장수군수) 씨 별세, 이영숙 씨 남편상, 최명재·맹민·한 씨 부친상, 구서관·백경현 씨 장인상, 임한나 씨 시부상 = 5일, 장수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7일 오전 8시 30분, 063-351-8050
- ▲원복희 씨 별세, 노영민(전 대통령 비서실장) 씨 장모상 = 4일, 포천장례문화원 202호, 발인 7일, 010-9322-0155

마감 후



박도훈
정치경제부 차장

뒤늦게 내년 예산안을 마무리로 공식(?) 논의했던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9차 회의록을 봤다. 회의록 하반부에는 소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예산 100%,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사업이 69.3% 각각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예산은 취약계층 수천 명의 일자리가 함께 사라질 그런 예산 규모를 삭감한 것이라며 예산 삭감 시점으로 4개월 후에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지원예산이 삭감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때문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 5624억 원 가운데 부정 수급된 예산은 300여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가 사회적경제라는 외피를 쓰고 사리사욕을 취한 것은 사실이다. 300여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 어떤 나뭇가지가 잘 자라고 있는지 가지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2021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 총 고용 6만3034명 중에 노동 취약계층은 61.2%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인증 후 5년 생존율도 86.4%다. 유엔도 올해 7월 보고서에서 한국

사회적 합의 필요한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직원 5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허 위원은 고용부가 작년 말에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성장과 복지를 선순환할 수 있게 하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고 자평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도종환 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사회적 경제 지원 예산을 59%에서 100%까지 삭감했다고 말했다. 도 위원은 정부와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공공의 영역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약자 지원을 통해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온 사업들이라고 했다.

도 위원은 올해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이 13개 부처 1조1181억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4800억 원으로 6345억 원이 삭감됐으며 56.7% 삭감은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 1093억 원은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 협동조합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사업체로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학자인 우석훈 박사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보수 정부에서 활성화됐다. 패전 이후 일본에서 생활협동조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절, 집권당은 자민당이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데이비드 캐머런의 영국 보수당이 집권에 성공할 때에도 사회적 경제를 어젠다 맨 앞에 내세웠다. 농협을 지금의 농협으로 만들고, 통치 기반으로 만든 게 5·16 직후의 박정희였다.

스위스, 스웨덴, 독일, 미국을 보면 일정 규모에 도달한 국민경제는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 그리고 사회적경제라는 세 개의 축을 갖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8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동안 나온 카르텔 우려를 포함해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soqgood@

2024 중견기업계의 꿈

논현로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2007년 9월 어느 날, 산업자원부장관과 차관이 파리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장관은 불가리아로 향하고 있었고, 차관은 루마니아와 헝가리를 돌아 귀국하는 길이었다.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될 제142차 BIE(세계박람회기구) 총회가 두 달 뒤였다.

짧은 대화를 나눴을까, 차관을 수행하던 젊은 과장에게 장관은 조심히 들어가라 인사하고는 이내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갔다.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정신없이 내달리던 날들의 작은 삽화다. 2012 여수엑스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달 29일 새벽, 사우디의 환호가 TV 화면을 채웠다. 벽은 높았고, 2030년 엑스포의 열기는 리야드로 건너갔다. 올해 초 엑스포 유치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스티라카와 몰디브를 방문했던 기억이 새삼 아쉬우나, 그뿐이다. 끊어지지 않아야 길이라고 언젠가 이 지면에 적었다. 새로 출발하면 된다.

1981년 바덴바덴의 “쉴, 코레아!”에 이르는 데에는 한강의 기적을 세계에 각인시킬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평창올림픽은 세 번의 도전 끝에, 월드컵은 동반 개최로 귀결된 치열한 경쟁 이후에야 겨우 품에 안을 수 있었다.

내놓을 거라고는 여덟 칸 기와집이 전부였던 1893 사카고 엑스포의 햇빛은 조선, 지금은 고개만 잠깐 들어도 눈부시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건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전략의 한계를 분석하고, 모든 경험에서 노하우를 집적해 내야 한다. 끊임없는 도전만이 좌절을 지운다. 시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다.

국민의 염원을 짊어지고 트랩에 오른 기업인들의 뒷모습을 떠올린다.

88올림픽의 현대, 평창올림픽의 삼성, 부산엑스포의 SK 등 전면에 나선 기업들은 물론, 세계에 명함을 내밀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리는데 헌신한 수많은 중견, 중소기업의 역사를 되새긴다. 통크게 베풀게 없는 상황에서 경제협력의 약속

올해 한시법 꼬리표 떼낸 ‘중견법’ 사상최고 투자·고용으로 화답하고 기업가정신 선양해 성장 이뤘으면

과 실패는 작지만 단단한 무기였고,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쌓아온 기업들의 신뢰는 열린 소통의 기반을 이뤘을 터다. 기업들은 더 성장했다. 잠깐 멈추면 어떤가, 부산 엑스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홀홀 털고, 어느덧 연말이다. 10대 뉴스가 쏟아질 텐데, 정부가 출범한 지난 해에는 용산시대 개막을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 K컬처의 약진, 국민 절반의 코로나 확진 등이 꼽혔다. 다이내믹 코리아답게 숨 가빴던 만큼, 올해가 어떤 뉴스들로 갈무리될지 지켜보고, 돌아볼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해가 바뀐 것보다 큰 전기였던 2022년 8월 이후의 10대 뉴스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취임, 수많은

중견기업인과의 만남, 최초로 대통령이 참석한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중견기업인들이 가득 운집한 첫 송년회, 단단해져가는 경제6단계로의 위상 변화와 이를 증명하듯 250명이 몰려든 신입직원 채용, 최초의 중견기업 도약지원펀드 결성 등이다.

중견기업특별법이 10년 한시법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상시법으로 전환된, 국회 본회의장이 전성을 뜻하는 초록빛으로 뒤덮이던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다. 물론 논현로 필진으로 참여하게 된 것도 작지만 귀한 뉴스다.

‘미리 보는’ 중견기업계의 2024년 10대 뉴스는 어떤가. 상속·증여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환경·노동·입지·공정거래 킬러규제 해소, 노사관계 유연성 회복,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중견기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의 변신, 기업 중심 R&D 체계 개편, 기업가정신 선양 문화 확산,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사상 최대 중견기업 투자·고용 실적 달성, 중견기업연합회 신사옥 착공과 회원사 전개 돌파 등은 기다려지는 소식이자 목전의 과제다.

30년 공직을 마무리하고 경제단체 상근부회장으로 인생 2막의 첫 장을 펼치겠다는 말로 지난 1월 ‘논현로’에 올라섰다. 중견기업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쓰고, 되새기면서 오히려 큰 배움을 얻은 시간이었다.

뜻깊은 기회를 제공해 준 이투데이와 졸필을 응원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로 전한다.

눈 밝은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필자의 10대 뉴스에 하나가 빠졌다. 지난 해 10월 10일 쌍무지개 뜬 날의 생애 첫 홀인원이다. 동반자들도 3년 동안 운이 좋다 하니, 함께 해 준 독자들과 모든 중견기업인에게도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인사시즌 ‘숫자’ 뒤 봐야할 것

노트북 너머

정회인
자본시장부 기자



여의도 증권가에 인사 시즌이 본격화했다. 지난해에는 대부분 연임을 유지하며 보수적인 인사 기조를 유지했지만, 유독 자본시장 사건사고가 잦았던 올해는 칼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고금리 등 대외변수로 인한 실적악화에 리스크 관리 실패 등을 이유로 대대적인 세대교체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인사는 초미의 관심사다. 문제는 ‘인사 기사’라는 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떠도는 ‘풍문’에 의존해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업 내 인사조직 관리가 소수의 의사결정권자 사이에서만 폐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오보가 나올 때도 잦다. 그러나 인사라는 중대사 앞에서는 온갖 추측과 확인되지 않은 ‘넘겨짚기’도 설익은 이슈로 내던져지곤 한다.

저 뜨면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올해 연이은 주가조작으로 미수채권이 불어나고 급속도로 실적이 악화하자 회사 내부적으로는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흐름을 구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측 발표도 전에 경질 보도가 먼저 나오면서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

물론 리스크 관리에 철저히 대응하지 못한 점은 뼈아픈 실책이지만, 사내에서는 주가조작이라는 피해갈 수 없던 외부 변수 때문에 벌어진 안타까운 결정이라는 평가도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로서 자신의 기사가 다른 보도와 차별화된 가치를 갖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정책이나 제도가 아닌, 사람을 두고 쓰는 기사에는 좀 더 신중함을 담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hihello@

이투데이, 말투데이

☆ 벨타사르 그라시아인 이모랄레스 명언 “위대한 스승은 제자에게 모든 기술을 다 가르치지 않는다.”

에스파냐의 작가. 로렌조 그라시아는 필명. 타라코나의 예수회 부속학교장을 지냈다. 지나치게 세속적이었던 그의 저술은 교단에서 호감을 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널리 읽히고 칭송받았다. 프랑스모럴리스트들의 선구가 된 그의 문명 비판을 다룬 소설 ‘비평가’는 유명하다. 그는 ‘예술은 인간의 정신력과 자연을 결합해서 매일 기적을 일군다’고 주장했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601~1658.

☆ 고사성어 / 귀매최이(鬼魅最易) 귀신과 도깨비처럼 형체가 없는 것이 그리기 쉽고,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이 잘 모르는 것이 그리기 쉽다는 말. 한비자(韓非子)에 나온다. 제(齊)나라 임금이 화가와 나눈 얘기에서 유래했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서 무엇이 가장 어려운가 하였던니 개나 말 같은 게 어렵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리기 쉬운가 하였던니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 게 가장 쉽습니다[畫難最難者 曰犬馬難 孰最易者 曰鬼神最易]. 개나 말은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이고 아침, 저녁으로 눈앞에 보고 있으므로 그와 같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귀신이나 도깨비는 형체가 없는 것이어서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입니다.”

☆ 시사상식 / 텐배거(ten bagger) ‘10루타’를 뜻하는 말. 실제 야구 경기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원하는 ‘10배 수익률’ ‘대박종목’을 말한다. 이 용어를 사용한 피터 린치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간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며 누적 수익률 2703%를 기록했고 이는 연 29.3%에 달한다. 이로 인해 텐배거(10루타)란 대박 종목을 뜻하는 증권가의 용어가 되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소상공인-中企 전문은행 검토를

은행의 독과점 폐해에 따른 개혁 여론이 극에 달하자 선거가 다가온 정치권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갑질, 돈 잔치, 독과점, 종노릇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포문을 열었다. 정책 이슈를 뺏기지 않고 선점하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은행들에게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횡재세는 은행이 돈을 많이 벌어배아프니 세금 더 내라는 놀부 심보일 뿐이다. 국민 70%가 불만을 표출하게 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다. 세금만 더 내면 은행들의 독과점 폐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이었던 래리 서머스 하버드 교수도 횡재세 도입으로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본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은행 독과점 원인과 해법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등에게 지원할 때, 그것은 대부분 은행을 통한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이다.

은행은 정부가 준 저리 자금에 예대마진을 붙이고,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러 오는 기업이나 개인들을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은행의 가장 큰 위험인 부실채권 우려도 없는, 정부 보증 대출도 덤이다.

전국은행연합회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년 6개월간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정책자금 금리 차 이자 수익’에 따르면 은행들은 매년 2500억 원대(2년 6개월 동안 6300억 원대) 규모의 이자이익을 얻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 자금 대출 중 일부를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특례보증자리론 정책 자금 대출이 40조 원대다. 통상 은행은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1%의 예대마진을 책기고, 부동산 대출은 7년간 유지되는 것이 평균이다. 즉 작년 특례보증자리

데스크 서각

설 경 진
중소중견부장



론 정책 자금 대출 하나로만 은행들은 매년 4000억 원씩 7년간 2조8000억 원대의 예상 이자수익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뿐인가. 매년 쏟아지는 각종 정책자금 대출, 전세 대출과 보증까지 합치면 은행들은 매년 조단위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가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덕에 은행들은 80조~100조 원의 청약 통장 판매로도 수입을 얻고 있다.

해법은 소상공인-중기와 서민들에게 나가는

정부 정책 자금 대출만 취급하는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 정책 자금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규 일자리

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직원 평균 연봉 1억 원대에 퇴직금과 추가로 많게는 명퇴금 10억 원까지 있어주지 않아도 되는 전문은행은, 예대마진 1%를 볼 필요가 없어 대출자는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청약통장도 전문은행에서만 판매하게 하면 제대로 된 이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구분 없이 모두 하는 국내 은행과 달리 중·소·서민 전문은행은 정책자금 대출만 처리하니 대출자는 끼워 팔기 일명 꺾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국민 세금을 통해 수조 원 벌고, 미국 일반 은행 창구 직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으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키코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을 불안전판매 하는 것을 국민이 언제까지 당하며 살 수는 없지 않은가. skj78@

사설

‘선 교통 후 입주’ 신도시 대책, 지옥철은 다시 없어야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공급 기간을 단축해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주요 골자는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나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맥을 짚고 개선을 시도하는 점은 다행이다.

정부는 우선 신도시 지구 지정 후 평균 2년이 걸리던 교통대책 수립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과거에는 신시가지지를 개발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해도 광역교통망 확충이 지연돼 입주민 불편을 낳고 원성을 샀다. 여태껏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지역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적어도 교통망 때문에 신도시 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은 되풀이되지 않게 된다.

지자체와의 갈등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내 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한다. 도로, 철도 건설 행정절차도 손질한다. 국토부는 핵심 도로의 경우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처리)하기로 했다. 도로가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할 때 불필요한 시간 지연을 막겠다는 것이다.

토목 분야의 사업 성패를 가르는 것은 언제나 사업 기간이 획기적으로 주느냐 여부다. 집 한 채를 짓는 일부터 대형 정비사업에 이르기까지 비

용과 손실을 줄이고 편익을 키우는 요령은 똑같다. 정부는 이번에 2기 신도시 평균 완료기간과 대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5.5~8.5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교대상인 2기는 택지개발에 매몰돼 혼란과 혼선을 피하지 못했다. 지방정치 폐해와 수요예측 실패 탓에 ‘지옥철’이 된 김포 골드라인 사례도 있다. 반면 교사가 따로 없다. 특히 지옥철 교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포 골드라인은 인구 50만 명 도시에 설치된 2량짜리 꼬마열차다. 출근 시간대 정원 172명의 2배가 넘는 승객이 탑승한다. 지옥철이란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승객이 나올 정도다. 역사 승강장이 2량 열차 기준이어서 증량도 어렵다. 배차 간격 단축과 증차가 이뤄진다면 미봉책이다. 근본 개선을 위해선 원점 재설계를 해서 역사부터 새로 만들어야 할 판국이다. 신도시 사업이 앞으로 어찌 전개되든 지옥철은 피해야 한다. 너무 서두르다가 도시 설계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은 실책이 아니라 범죄에 가깝다. ‘선 교통 후 입주’ 정책 관련자들도 유의해야 한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3기 신도시는 입주와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다. 장밋빛 청사진이다. 하지만 정부 의지만으로 뒷감당이 어렵다. 광역교통법과 시행령, 교통대책 수립 지침 등 법적 보완이 불가결하다. 입법 지원이 필수란 뜻이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통망 대책은 2007년부터 무수히 쏟아졌다. 다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선진국 ‘성공방정식’ 배워야

시론

이명호
(사)케이엔 이사장
미래학회 부회장



한국은 기적 같은 성취를 이룩한 나라다. 한강의 기적,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에서 세계 6~13대 강국, 눈 떠보니 선진국 등 많은 면에서 성공한 나라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뒷받침한 것은 높은 교육열, 근면, 선택과 집중, 대기업 주도, 선성장 후분배 등의 주격형 경제 모델의 성공이었다.

서열화된 엘리트 사회의 성공신화에 도취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의 성공 모델이 진정한 성공, 국민에게 자부심과 행복을 가져왔는가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 부동산 격차 등 각종 격차는 이제 세대, 남녀, 이념 등의 격차 또는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결국은 사회 구성원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사회의 유지나 재산을 포기하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경제 성장을 달성한 나라가 또다시 유례없는 빠른 속도와 최저 수준의 초저출생 사회로 변하고 있다. 합계출생률 0.7 수준의 초저출생은 ‘나라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서열화된 엘리트 사회의 성공 신화에 도취되었다. 집단을 나누고 우열을 구분하는 방식의 효율성은 이제 나와 상대방을 나누고, 나는 우월하고 상대방은 열등하다는 잠재 의식이 자리잡고, 결국 모든 방면에서의 집단적 대립, 갈등 상태에 도달하였다. 이제 나라의 소멸을 가져오는 서열화된 엘리트 사회라는 성공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니 서열화된 엘리트 사회라는 망령을 떨쳐버려야 한다.

한국이 반쪽 성공에서 실패한 나라가 되기 전에 우리의 성공 모델을 반성하고, 다시 선진국의 성공 모델

을 배워야 한다. 지금의 선진국들도 이전의 성공 모델을 성찰하고 궤도를 수정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어 성공한 나라들이다. 특히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적응 및 진화해가는 경제개혁 및 구조개혁이라는 대응력을 갖추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회통합 등 균형발전 추구해야

또한 하나의 성취만을 우선시하지 않고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였다는 것이 성공한 선진국들의 공통점이다. 선진국이 된 국가들은 경제성장, 사회통합, 삶의 질, 국제관계의 측면에서 모두 다른 발전 경로를 거쳤지만, 4가지 측면이 균형을 이루며 순환적 상승작용을 하였다. 특히 사회통합은 모든 선진국들이 달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변화가 가능한 국가의 모습을 보였다. 사회갈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사회통합, 사회적 신뢰를 이루고,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더라도 유연하게 적응, 조정, 변화를 거쳐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다.

지금 한국은 사회통합의 위기에 처해 있다. 사회 유지, 재생산이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 그 현상이 초저출생이지만, 지금과 같이 저출생 대책을 확대한다고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근본 원인인 서열화된 엘리트 사회라는 구조를 깨뜨리지 못하면 위기는 반복될 것이다.

해법은 단순하지만 어려운 각종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더 생산적이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진료실 풍경

그의 척추는 심하게 휘어있었다. 심한 척추만곡증으로 그의 등은 에스자 모양이었고 좌측은 심하게 앞으로 들어가 있었고 우측은 그만큼 뒤로 빠져있었다. 몇 해 전 그는 아내를 잃었다. 나와 동갑인 그는 이제 홀로 딸과 아들을 키워내야 하는 인생의 쓸쓸하고도 외로운, 무겁고도 허전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엄마가 떠나고 아들은 심각한 사춘기를 겪었다. 가출을 빈번히 일삼았다. ‘이 녀석이 또 집을 나갔는데 어디에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그는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언젠가 아들이 감기로 진료실을 찾았다. 어느새 집에 들어온 모양이었다.나는 어느새 그의 심정과 동화되어 이 녀석을 어떻게 훈계해야 하나, 어떻게 따끔하게 혼내 줘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하나, 진료는 뒷전이였다.

아이에게 아들에게 할 잔소리를 쏟아내 볼까, 별생각을 다 하다 ‘잠을 꼭 자야 한다, 약 잘 먹어라’ 하고 의사가 할 수 있는 말만 하고 돌려

보냈다.

그뒤론 그와 만나면 자식 걱정하는 걸로 시간을 보냈다.한번은 병원을 찾은 그의 등에 청진기를 갖다대고 들리지 않는 폐소리를 애써 들으려 해 보았다. 그때 내가 들은 소리는 그의 폐음이 아니라 그의 한숨 소리였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우나, 인생이 내는 한숨 소리…. 내 청진기는 한 곳에 멈춰 섰고 청진기를 든 내 손은 그의 등에서 멈췄다.

얼마전 머리를 짧게 자른 그의 아들이 진료실로 들어왔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갔다고 했다. 휴가 중에 진료받으러 들렀다고 했다. 제대하면 뭐 할 거냐고 물었다. 공부해서 대학에 가 보겠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아이고 잘했네, 잘 생각했네’ 소리가 절로 나왔다.

그 말이 사실인지 물론 제대하고 나서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내가 아빠인 것처럼 기뻐다.

조석현 누가광명의원 가정의학과 원장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국도로 월 1만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이 작은 꿀벌이 제 전부고
행복 그 자체입니다"

선인양봉종봉원 박혁진 대표 (23세)

이 작은 친구와 함께 하면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에게
꿀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됐어요

날씨가 좋지 않아도 꽃송이를 오가며 꿀을 모으는
꿀벌들을 보면서 성실함의 가치도 배웠고요

더 열심히 이 소중한 친구들을
지켜줘야겠다고 매일 다짐합니다

처음엔 도전이었던 이 꿀벌이
이젠 제 전부이자 행복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희망들을 KB가 응원합니다

To BEE continued

Korea Better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희망부자
그 두번째 이야기 ☺



K-Bee 프로젝트

KB금융그룹은 밀원숲 조성 및 도시 양봉을 통해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K-Be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 금융그룹